



오늘의 조선

8

주체106(2017)
루게 제336호 월간

우리는 만리마기속

보통속도로 (♩=138)

작사 리지성
작곡 현경일

mp G Em D

1. 로동당이 펼 친 만리마의시 대 질풍같이 내달리자 새승리에로
(후렴) *f* D7

자기힘을 믿고 만남헤쳐가는 우리들은 만리마기 수 만 리

G Bm E7

마 조선의 기상 이 여 - 만 리

Am A7 D D^{dim}7

마 주체의 나 래 여 - 눈 앞

Em C A7

에 제일 강국 - 바라보 며 - 힘 차

D7 G

게 힘차게 달 린 다 -

2.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을 열며
혁신으로 증산으로 기적떨친다
과학기술나래 활짝 펴고 날아
리상향에 어서 가달자
(후렴)

3. 폭풍치며 전진 번개치며 전진
이 진군에 사회주의승리가 있다
백년세월 당겨 미래향해 달려
온 세계를 앞서가리라
(후렴)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평양양말공장 로동계급

평양양말공장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그 어느 일터, 그 어느 기대에 가보아도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일 열의가 로동자들의 얼굴마다에 어리어있다.

본사기자 최원철

차례

-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

만리마를 타고 전진하는 우리 조국 3

일 화

군대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보시라 6

눈부신 사회주의강국건설속도 7

시대의 선구자들을 부르는 선전화 8

만리마시대의 앞장에서 9

강원도청년들의 일본새 10

질풍을 세번트를 더 많이, 더 빨리 1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혁명시인 김혁 16

조국해방과 민족의 운명 18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 19

참판기

무진막강한 군력을 다져주시여 20

조국통일과 3대헌장 22

백두산8경 23

높은 의술과 뜨거운 사랑으로 26

방문기

옷을과 노래 차넘치는 야영소에서 28

3부지요술가기점 32

도시인의 해수욕장에서 34



만리마를 타고 전진하는 우리 조국

조국의 품에 안겨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어 36



고향소식
민민사랑 전하며 변모되는 고장 38

편지
이역의 고요를 그리며 40
전망이 좋은 신의주관광 41

인상기
반드시 이룩될 조국통일 42
사람들의 웃음에 반했다 42
나는 락원을 보았다 43



고국방문
《고국에 와보고싶던 소원이 풀리었습니다》 . . . 44
더 많은 자료들을 보충갱신하여 46
고구려의 미술 47

사화
울릉도와 독도를 지켜낸 안릉복 48

조선의 구석기시대 49

야화
다독의 명수 49
개성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9) 50

민족의 향기
따뜻하고 근숙한 송년맞이를 보내 51
조국의 천년기념들 (7) 52
련대련합과 단결 54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초래할것은 55
날조와 거점의 명수 일본 56

조선속담 (경술합) 26
 상식
건망증을 고치는 비결 32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6
튼병부 37
 유모아
불공평한 점수 56

오늘 우리 조국에서는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공격전이 과감히 벌어지고있다. 전민총공격전은 세월을 앞당기며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해 폭풍쳐나아가는 만리마속도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그 어디에 가보아도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라는 시대의 물음에 집단적경쟁열풍, 련대적혁신이 일어나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이 적극 벌어지고있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주의원칙, 사회주의본태가 확고히 고수되고있다. 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4.5갱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이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연간 광물생산계획을 완수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전문을 받아안은 최상의 영광을 지니고 첫 만리마작업반의 영예를 지니었는가 하면 그뒤를 이어 온 나라의 생산단위들에서 만리마속도를 창조하며 련속공격,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오석산화강석광산에서도 지난 2월말까지 상반기생산과제를 앞당겨 수행한 기세로 계속출기찬 돌격전을 벌려 뜻깊은 태양절을 앞두고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120%로 넘쳐 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새롭고 효율적인 발파방법들을 받아들이고 자행식대절기를 비롯한 중요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지난 시기에 비해 원석생산을 비약적으로 장성시키였다. 이와 함께 돌가공속도를 높일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들을 도입하여 생산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었다. 광산에서는 많은 종업원들을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에 입학시키고 기술학습과 기술전습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조직하여 가치있는 기술혁신성과들이 이룩되게 하였다. 부령합금철광장에서는 수십종에 수백개에 달하는 설비와 부분품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여 가스청정계통과 랭각계통을 비롯한 여러 계통들로 이루어진 갈탄건류로를 새로 일떠세웠다. 갈탄건류로가 짧은 기간에 일떠섬으로써 북부지구에 무진장한 갈탄을 리용하여 질 좋은 반성폭스를 생산할수 있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인 타르를 가지고 점결제를 만들어 전국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게 하였다. 하여 공장에서는 자체의 원료와 연료, 자재를 가지고 합금철생산을 활성화하고 생산량을 계획적으로 높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박천견직공장에서는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지난해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 5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직포공의 경험을 적극 내세우고 일반화하기 위한 소개선전사업을 의의있게 진행하면서 모든 직장, 작업반, 종업원들속에서 집단적경쟁열풍이 세차게 타번지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공장에서는 지난 3월말현재 16명의 연간 인민경제계획완수자들과 32명의 상반기 인민경제계획완수자들이 배출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비약과 혁신의 불길은 비단 한두개의 생산단위들에서만 아닌 황해제철련합기업소,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금성트락트르공장 등 조국의 방방곡곡 일터들마다에서 활화산처럼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그 벽찬 숨결은 인민의 리상실현을 위한 자기 령도자의 결심은 무조건 현실로 꽃피워야 하며 꽃피울수 있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만리마의 속도로 질주하는 조국인민들의 위대한 기상과 함께 천리마대고조시기에 대해 다시금 절감하게 하고있다. 우리 조국력사에서 천리마대고조가 일어난 때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러왔지만 그 전통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재를 생산한 천리마의 고향 강선의 그 기상, 그 본태를 이어받은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사회주의조선의 강대성과 불패의 국력이 응축된 렬명거리건설에서 만리마속도를 창조하였다. 렬명거리건설장에서 타오른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만리마속도창조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전설에도 없는 신화적인 건설 속도, 만리마속도는 조국의 군대와 인민이 조선로동당의 원대한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어떻게 실현하고있는가를 온 세계에 과시하였다.

려명거리건설은 단순히 하나의 거리를 일떠세우는 공사가

아니라 조국의 앞길을 한사코 가로막아보려는 적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이었다.

사실 려명거리건설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제재와 반공화국침략전쟁책동속에서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그것도 함복도 북부피해복구전투까지 치

르면서 진행된 참으로 아름답고 방대한 건설이었다.

그러나 려명거리건설이 선포되던 력사의 그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려명거리를 올해중에 반드시 일떠세움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

을 안겨주고 밝고 창창한 래일을 내다보며 자기의 뚜렷한 앞길을 개척하는 우리의 힘, 세계가 알지도 못하고 알수도 없는 주체조선의 필승불패의 전통을 다시금 과시하자고 하신 호소는 려명거리건설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호소를 받아안으며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가슴속에서 떠오른 생각은 려명거리건설을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결속하려면 새로운 공격정신, 공격속도가 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그들을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건설속도창조에 불려일으킨 원동력은 다름아닌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이였다.

그이께서는 몸소 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어 건설 전 과정을 지도하시며 때로는 하늘길에 오르시어, 때로는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면서 려명거리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고 건설에 필요한 자재, 설비를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료해하시면서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도록 온갖 대책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룩까지 지어주신 격전장,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트락 가장 가까이에 일떠세우는 려

명거리건설전역에서 마땅히 오늘의 시대를 대표하는 만리마가 제일먼저 날아올라야 한다!》

려명거리건설에 참가한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심장마다에 맥박친것은 이 하나의 신념과 의지였다. 그 신념과 의지를 안고 그들은 착공식이 진행된 때로부터 20일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수십동에 달하는 종전의 낡은 건물들을 들어내고 방대한 량의 버럭치리와 기초굴착을 끝내였으며 이어 골조공사와 마감공사에서도 련일 새로운 공법을 창안하며 아침과 저녁이 아니라 분초가 다른 건설속도, 만리마속도를 창조하였다.

군대와 인민을 태운 만리마의 발굽은 려명거리건설이 지연될것이라고 췌치는 원수들의 꾀변이 미친자들의 녀두리에 불과하다는것을 증명하고 사회주의 강국건설기상이 나래치는 우리 조국의 진군속도가 어떤것인가

만리마속도가 창조된 려명거리



일 화

군대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보시다

지난 3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려명거리건설장을 찾으시였다.

건설장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분과 초를 다루며 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건설자들에 의하여 려명거리에서 신화적인 건설속도가 창조되고있는데 대하여 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려명거리에서 창조되는 건설속도야말로 사회주의조선의 진군속도이며 우리 당의 강국건설속도라고 격정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특질과 투쟁기풍의 발현인 만리마속도는 곧 위대한 수령님들의 리상, 인민의 리상실현의 시간이였다.

그 규모에 있어서 미래과학자거리의 2배가 넘는 려명거리건설은 번영의 대서사시를 써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응지의 발현이였다.

려명거리건설장이 들끓고있던 올해 1월 어느날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장을 찾으시어 《우리는 올해 태양절까지 려명거리를 최상의 문명이 응축된 웅장화려한 거리로 완공함으로써 우리를 압살하려고 날뛰는 원수들에게 라격을 주고 나라의 강대성과 국

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떨쳐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만리마시대의 숨결이 맥박치는 려명거리건설장을 돌아보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를 다시금 강렬하게 절감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려명거리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자랑스러운 성과들은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당(조선로동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 무조건 관철하는것을 체질화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완강한 공격기질, 한계를 모르는 무한대한 정신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일떠서는 려명거리는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강대한 나라를 기어이 건설하려는 우리 당의 구상이 반영된 거리,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의 위력이 깃들어있는 거리, 사회주의문명이 응축된 거리,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경제적잠재력을 과시하는 거리, 우리가 일단 마음먹은것은 다할수 있고 우리 식대로 남들이 보란듯이 잘살수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떨치는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높이 솟아 빛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 * *

를 웅변적으로 실증해주었다.

하기에 지난 3월 15일 이른 새벽 완공을 눈앞에 둔 려명거리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려명거리야말로 만리마속도창조의 고향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상징하는 만리마속도는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사수전, 사회주의수호

전인 려명거리건설장에서 이렇게 창조되였다.

아침과 저녁, 분초가 다르게 변모되는 주체조선의 눈부신 대비약속도와 질적인 변혁과 비약을 이룩하고 세계를 앞서나가는 주체조선의 기상과 본때, 온갖 적대세력들의 야만적인 제재봉쇄책동을 자강력으로 짓부시며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나가는 천만군민의 굴함없는 공격기상을

보여주며 세계의 하늘높이 날아오른 만리마,

려명거리건설장에서 창조된 만리마속도는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낳으며 더 빨리, 더 힘차게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갈것이다.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조선중앙통신

눈부신 사회주의강국건설속도

오늘 우리 조국은 어제와 오늘이 다른 상상도 할수 없는 빠른 속도로 비약하고있다. 도처에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과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해마다 사회주의 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거리들이 건설되고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상식과 기성관례들을 깨뜨리고 세인을 놀래우는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해나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자랑찬 모습이다.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해나가는 이 눈부신 속도, 만리마속도는 려명거리건설장에서 창조되였다.

만리마속도창조의 고향인 려명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한없이 송고한 인민관과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조선로동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조선로동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 무조건 관철하는것을 체질화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완강한 공격기질, 한계를 모르는 무한대한 정신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이다.

만리마속도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의 천만 군민이 최악의 역경속에서 최상의 기적적승리를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쟁취해나가는 신화적인 사회주의강국건설속도이다.

만리마속도는 한걸음에 만리를 내닫는 만리마와 같이 질풍같이 달려 어제와 오늘, 분과 초가 다르게 강산을 변모시키는 속도로서 여기에는 젊음으로 약동하는 우리 조국의 비약의 기상이 맥박치고 우리 식의 투쟁방식, 창조본때가 집약되어있다.

만리마속도의 특징은 우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대전군속도라는것이다.

지금 기적과 혁신으로 들끓는 대건설전투장들로부터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높이 울리는 공장과 기업소, 수천척지하막장과 과학연구기지, 사회주의협동전야의 포전들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그 어디에서나 드높은 혁명적열정과 비상한 애국열의가 차넘치고있다. 천리마시대처럼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만리마속도창조의 경쟁열풍이 세차게 나라치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이 도처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만리마속도는 불굴의 정신력과 과학기술력을 정수로 하는 자강력을 원동력으로 하여 창조되는 속도라는데 또한 그 특징이 있다.

자강력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하는 힘이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체로 살아나기려는 강한 정신력, 그 어떤 불리한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기적을 창조하는 과학기술력을 가져야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뚫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질적변혁, 질적비약을 일으킬수 있다.

천리마가 남을 따라앞서기 위한 비약의 준마였다면 만리마는 세계를 디디고 솟구쳐오르기 위한 과학기술룡마이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남들이 걸은 백걸음, 천걸음을 한걸음에 도약하며 세계를 앞서나가자면 과학부문이 용을 쓰며 일어나고 주체과학의 신비한 힘이 작용해야 한다.

이번에 진행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

형시험발사,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란 《북극성-2》형시험발사, 신형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 정밀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 로켓시험발사,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 등의 련속성공은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세계를 굽어보며 달리는 주체조선의 기상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만리마속도의 특징은 또한 인민군대가 기수, 선구자가 되어 모범을 창조하고 온 사회에 일반화되는 속도라는것이다.

전진하는 대오에는 기수가 있으며 과감한 공격전의 선봉에 서있는 기수의 역할에 따라 대오의 전진속도가 결정되고 혁명의 성패가 좌우된다.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치는 총공격전의 앞장에는 결사관철의 정신, 단숨에의 기상으로 돌격로를 열어나가는 인민군대가 서있다.

혁명의 주력군, 핵심부대인 인민군대가 앞장에서 서서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설계도따라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이고 중요대상건설장마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신화적인 건설속도를 창조하며 시대를 선도해나가고있다.

온 사회에 혁명적군인정신이 차넘치고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에 의하여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 만리마조선의 새로운 력사가 창조되고있는 것이 오늘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이다.

참으로 만리마속도는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기적과 위훈으로 수놓아가는 승리의 진군속도이다.

인민경제대학 교원 량경호



시대의 선구자들을 부르는 선전화

오늘 조국에서는 만리마속도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그 어느 일터에 가보아도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라는 물음에 뿔뿔이 대답하기 위해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가는 인민들의 벅찬 숨결을 느낄수 있다.

그러한 속에 전체 인민을 만리마속도창조운동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선전화들이 창작되어 만리마시대의 사회적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선전화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라!》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아 내달리는 만리마시대의 본질을 담고있다. 그리고 사회주의강국을 앞당겨오기 위한 오늘의 만리마속도창조운동에서 모두가 선구자, 기수가 될것과 패배주의, 수일병, 의존심을 버리고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할것을 호소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선전화에는 만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려는 조국인민들의 신념과 의지가 반영되어있다.

선전화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리마속도창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던 지난 천리마시대를 돌이켜보게 한다. 천리마시대에 조국인민들은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남이 한걸음을 걸을 때 열 걸음, 백걸음을 달려나갔으며 온갖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불사르면서 계속혁신, 계속진전해나갔다. 천리마대고조의 나날들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매일과 같이 혁신이 일어났으며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렀지만 천리마를 탄 기세로 세월을 주름잡으며 질풍같이 내달려온 인민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영웅적기상은 오늘 만리마시대로 이어졌다.

우리 조국에서의 만리마시대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질적인 변혁과 비약을 이룩하여 세계를 앞서나가는 시대이다. 누구나 만리마를 타고 다계단의 변으로 질풍같이 내달려 세기를 주름잡고 세계를 따라 앞서나갈 때 조국을 하루빨리 천하제일강국의 높이에 우뚝 올려세울수 있다.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 조국인민들은 이 물음에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도 보다 큰 비약과 기적창조로 대답해나서며 만리마시대의 기수, 선구자로 자랑떨칠것이다.

본사기자 전룡진



만리마시대의 앞장에서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에 만리마속도창조의 선구자가 되자, 이것은 조국인민들이 지닌 심장의 언어이다.

두뇌로 일하는 지휘관

시대의 앞장에서 달리는 선구자들가운데는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금골광산 4.5갱 영웅소대의 소대장 고정찬도 있다.

그의 소대는 태양절까지 연간 생산계획을 완수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전문을 받아안았



고정찬

으며 첫 만리마작업반의 영예를 지니었다.

소대가 위대한 장군님과 맺은 정을 피출처럼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과 심장의 맥동을 같이하여오며 10여년간 해마다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해오고있는 비결은 다름아닌 련합기업소적으로 소문난 고정찬 소대장의 실력에 있다.

금골광산의 일군 리동호는 《그는 똑심으로가 아니라 두뇌로 일하는 지휘관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끄는 소대가 만리마를 제일먼저 타는것은 응당한 일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모든 사색과 열정, 지혜를 다 바쳐 소대를 승리의 지름길로 능

란하게 이끌어온 그의 모습은 창조와 변혁으로 벅찬 오늘의 투쟁에서 말단단위를 책임진 일군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며 만리마시대의 일군들은 어떤 사람이여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주고있다.

백옥같은 마음으로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이 아니라 일편단심 백옥같은 충정으로 당과 수령을 받드는 만리마선구자들가운데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견방종합직장의 직포공 한명희도 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한명희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다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순간순간을 기적과 위훈으로 빛내일 마음을 안고 그는 5년기간 해마다 5년분, 6년분생산계획을 완수하여왔다.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여온 그는 지난 5월에 벌써 2년분생산계획을 완수하였다. 그에게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천을 짜겠는가 하는 생각밖에 없다. 그는 《나의 사상을 알려거든 내가 만든 제품을 보라!》는 구호를 보

며 오리오리에 정성을 담아 천을 짜고있으며 갓 들어온 직포공들의 기술전습도 도맡아함으로써 모두가 만리마선구자, 새 기준, 새 기록창조자가 되게 하고있다.

오늘도 그는 자기의 손목에 채워져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의 초침소리에 발걸음을 맞추며 앞으로만 나아가고있다.

생산장성의 기본열쇠

평양326전선공장 하면 생산계획은 물론 생산문화에서도 그 누구의 뒤에 서지 않는 단위로 온 나라에 그 이름이 알려져있다.

공장의 마감공정인 절연직장에서 자랑하는 만리마선구자는 직장장 최동욱과 비닐작업반 비닐주빈공 권영준이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



최동욱(오른쪽)과 권영준

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나아가는 대오의 앞장에는 언제나 직장장 최동욱과 로동자 권영준이 서있다. 그들은 수령연신기 동력전달장치의 마찰판개조, 회수증기를 리용한 생고무녹임방법, 새로 개조한 빗뻐늘임기의 성능개선 등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

강원도청년들의 일본새

강원도인민들 특히 강원도청년들의 일본새가 만리마속도로 내달리는 온 나라를 뚫게 하며 그 전진을 추동해가고있다. 특히 이곳 청년들은 자기들의 명절인 청년절(8월 28일)을 맞으며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가고있다.

지난 기간 어렵고 방대한 원산군민발전소를 일떠세운 이곳 청년들은 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 못지 않은 도양묘장을 건설한데 이어 지금 도안의 5개 군들에 새로 발전소들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다. 뿐만아니라 공장, 기업소들을 개건하고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것을 비롯하여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인 역할을 하고있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향해 전진해가는 그들의 일본새가 주목을 끌고있다. 그것은 그들이 창조한 강원도정신에 그 원동력을 두고있기때문이다.

강원도정신창조의 앞장에서

강원도정신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반드시 풀어드리겠다는 이도 인민들의 충정의 마음이 깃든 정신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모진 시련속에서도 자기 힘을 믿고 사생결단의 각오와 불굴의 의지로 자기 령도자의 유훈과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정신이다. 이 정신을 도안의 청년들과 인민들이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에서 창조하였다.

원산군민발전소는 조선서해로 흐르던 강물을 동해로 돌려 전기를 생산하게 되어있는것으로서 마식령의 험산준령들을 꿰지르는 물길굴만도 수십리나 뚫어야 하는 방대한 대자연개조공사였다. 그러나 도안의 청년돌격대원들은 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기에 앞서 또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아예 버리고 죽으나사나 무조건 해야 한다는 한가지 생각을 굳히며 공사의 첫 공정인 무덤이 언제기초굴착과제를 단숨에 해제하는데 이어 언제장

여 종전에 비해 생산을 훨씬 늘리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 온 직장이 만리마속도창조열의로 부글부글 끓게 하고있다. 이들의 뒤를 따라 보다 큰 로



자력자강의 힘으로 일떠세운 원산군민발전소



기술혁신의 앞장에 서있는 안변요업공장 청년들



도양묘장건설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는 강원도청년돌격대 청년들 주체106(2017)년 5월 촬영

석쌓기공사에 달라붙었다. 사실 이때로 말하면 사나운 겨울철이라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봄에 가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청년들은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는 신념으로 차디찬 물속에도 서슴없이 뛰어들어 막돌채취를 진행하였으며 운수수단들을 리용할수 없게 되면 그것을 등짐으로 저나르면서 공사속도를 앞당겨갔다.

발전소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는 물길굴공사였다. 그것은 무섭게 뿜어져나오는 석수가 청년들의 의지를 시험이나 하려하는듯 기승을 부리며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섰기때문이었다. 하지만 청년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혹한 시련을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맞받아 뚫고나가며 한치한치 앞으로 돌진해나갔다. 그들은 그날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고 웨치며 식사하러 오가는 시간마저 아까와 주먹밥을 먹으며 전투를 벌렸다.

발전소건설에 동원된 청년들의 투쟁에 뒤질세라 문천강철공장의 청년들은 청년결사대를 못고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레루와 강재를 생산보장하기 위한 증산의 동음을 세차게 일으켰다. 그들은 과학자, 기술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이미 있던 용광로를 도에 혼한 철광석을 원료로하고 폭스를 쓰지 않으면서 쇠물을 뽑을수 있는 용광로로 개조함으로써 레루와 강재를 마음먹은대로 생산하여 발전소건설장에 보내주었다.

력적성파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빛내일 열의에 넘쳐 온 나라가 련속공격,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유선화
사진 본사기자 임철병

발전소건설장에서 분출된 청년들의 정신력은 마침내 강원땅을 휩쓸며 도내의 인민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원산군민발전소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며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려 자체로 방대한 발전소건설을 완공한 강원도청년들을 비롯한 인민들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들을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로 불러주시며 온 나라가 따라배울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승리의 열쇠는 자력자강에서

도청년동맹일군인 박은숙은 《전에는 강원도를 두고 암하로불(바위밑에 앉아있는 늪은 중)이라고 하였는데 이제는 강원도가 자력자강의 선구자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청년들의 몫이 대단히 컸다고 우리는 자부하고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의 말대로 강원땅은 어디서나 공기처럼 느껴지는것이 자력자강의 일본새이다. 어디 가나 청년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겠다는 자존심과 배짱을 지니고 과학기술의 선구자가 되어 알찬 열매를 걸어들어가고있다.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 가보면 영예군인 청년들이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내걸고 과학자들과 합심하여 처음으로 인공잔디와 체육관관람석의 수지의자를 멋들어지게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는가 하면 안변요업공장의 청년들은 난관과 시련을 완강히 이겨내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원료,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자기 공장제품을 가까운 년간에는 동해안지역에서,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그 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약속하며 분발해나서고있다.

요업공장의 청년동맹일군 김택룡은 말하였다.

《확실히 우리 청년들의 사고와 실천, 일본새는 완전히 달라졌다. 하기에 공장의 청년들은 하나의 기술혁신을 해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설계하고 실현해나가고있다. 남들이 못한다고 하면 우리도 못하겠는가, 남들이 못한것이기때문에 우리는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장청년들은 부단히 새것을 창조해가고있다.》

이런 이야기는 룡담세멘트공장의 청년들속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얼마전 이 공장에서는 개건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여기에서 청년들은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니라 첨단급으로 하자고 결의해나섰다고 한다. 하여 종전의 설비들을 들어내고 현대적인 소성로를 만들기 위한 발기와 착상들이 나오고 진척되었는데 여기에 온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합심하여 달라붙으니 끝내는 높이 세운 목표 그대로의 세멘트공장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참으로 강원도청년들의 일본새는 자기 령도자의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그것을 관철하는데서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다는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투쟁할 때 못해낼 일이 없으며 오직 승리만이 있다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주고있다.

오늘 조국땅에서는 그들의 일본새를 따라배우고 앞서나가기 위한 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그런 속에서 보다 큰 성과들이 련일, 련속 창조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

질 좋은 세멘트를 더 많이, 더 빨리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세멘트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현장을 돌아보면 로동자들의 작업모습을 쉽게 찾아볼수 없지만 질 좋은 세멘트를 가득 실은 자

동차들과 렬차들이 꼬리를 물고 나라의 방방곡곡 대건설전투장으로 떠나가고있다.

이것은 세멘트생산을 위한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중앙조종실에서





만가동의 동음을 높이 올려가는 크링카분쇄기

련합기업소의 일군인 최영현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만리마속도창조의 열풍속에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하고있다. 한편으로는 전망생산토대를 더욱 튼튼히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세멘트포장실에서



현행생산과 전망생산을 위해 련합기업소에서는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워 자체의 힘으로 내화벽돌을 생산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소성계통에서 중유를 쓰지 않고 착화하는 새로운 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설비제작 및 조립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소성직장의 생산자들은 세멘트생산의 기본공정의 하나인 소성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 매일 최고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공무직장의 로동계급은 설비가동률이자 생산실적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설비보수와 수리에



석회석광산에서

필요한 수백여가지에 달하는 각종 설비부속품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하여 세멘트중산을 담보하고있다. 이 과정에 최태화를 비롯한 많은 로동자들이 지난 4월에 상반년계획을 완수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소성직장, 세멘트직장, 출하직장 등 련합기업소안의 모든 직장들의 운전공들은 기대들에 대한 순회점검을 앞세워 나타나는 사소한 고장요소도 제때에 퇴치하여 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석회석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세멘트생산의 선형공정을 책임졌다는 높은 자각속에 매달 광물생산계획을 높은 수준에서 수행해나가고있다. 광산에서는 지형조건에 맞게 채굴방법을 끊임없이 갱신하고있으며 자체로 웨도식대형전동차를 제작하여 광물운반에서 많은 연료와 로력을 절약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수입에 의존하던 특대형파쇄기망치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함으로써 세멘트원료보장에서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련합기업소의 일군인 전명일은 《우리는 사회주의문명국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하는 주춧돌이 되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세멘트생산에서 최상의 질, 최고의 속도를 보장함으로써 만리마시대에 우리 공장앞에 부과된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겠다.》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철민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혁명시인 김혁

(전호에서 계속)

수첩에 김혁의 시를 베껴 가지고 다니면서 제일 애송한 녀학생도 바로 승소옥이었다. 그가 시도 잘 읊고 노래도 잘 부르고 연설도 잘하는데다가 계절에 관계없이 늘 하얀 저고리에 깡장치마를 입고 다니었기때문에 승소옥이라고 하면 길림시내 청년들치고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생활을 언제나 열정적으로 감수하고 시화해온 김혁은 사랑도 역시 열렬히 하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을 하면서도 사랑을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인간성도 없고 인간다운 사랑도 없는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우리들중 많은 사람들은 혁명을 하면서 사랑을 하였고 탄우속에서 가정도 이루었다.

방학철이 오면 우리는 김혁과 승소옥에게 몇가지 군중공작과업을 주어 고유수로 보내곤 하였다. 고유수에는 승소옥의 집이 있었다.

그들은 군중들과의 사업을 하는 여가를 타서 종종 벼들숲이 무성한 이통하강변에 나가 산책도 하고 낚시질도 하였다. 김혁이 낚시질을 할 때

면 승소옥은 옆에서 고기도 따주고 미끼도 끼워주었다. 경치좋은 북산과 송화강반에서 그리고 이통하기슭에서 혁명과 더불어 그들의 사랑도 나날이 무르익어갔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승소옥의 아버지 승춘학이 그들의 사랑을 달가와하지 않는 것 같았다.

승춘학은 삼광학교의 전신이라고 할수 있는 창신학교의 설립자이며 교장이었다. 몇해 동안 쏘련에 가서 연해주지방을 돌아다니며 공부도 하고 문명의 맛도 본 사람인것만큼 그때로서는 상당한 정도로 개명한 인물이었다. 우리가 고유수에 가서 창신학교를 삼광학교로 개조하고 민족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대중조직들을 공산주의조직, 혁명조직들로 개편할 때에도 그는 우리가 하는 일에 선참으로 리해를 표시하고 적극적으로 방조해주었다.

이런 사람이 자기네들의 사랑에 랭담한 태도를 취하였으므로 남아장부인 김혁이지만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승소옥의 어머니는 김혁을 좋은 사위감이라고 생각하였기때문에 딸이 그와 교제하는 것을 눈감아주고 남편앞에서도 은근히 두둔해주었다. 그 후 오랜 기간 김혁의 사람됨을 면밀하게 주시해오던 승춘

학도 결국은 그가 훌륭한 혁명가임을 알고는 딸의 의향을 따르게 되었다. 승춘학이 그들의 약혼을 허락한 날 김혁과 승소옥은 사진을 찍었다. 그 당시 승소옥이네 집에는 사진기도 있었다.

김혁이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상태에 빠진 승소옥은 이통하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다. 우리 동무들이 강변에서 그를 끌어내다가 겨우 진정시켜놓았다.

승소옥은 그후에도 혁명활동에 성실히 참가하다가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의 필자인 최일천의 안해가 세상을 떠나자 그에게 시집을 갖다. 비록 계모가 되어 남의 아이들을 기르는 한이 있더라도 김혁과 같은 혁명가와 일생을 같이 하겠다는것이 녀성으로서의 그의 리상이었다.

김혁의 불같은 성격은 혁명실천에서 충실성으로 표현되었다. 그는 높은 책임성과 충실성을 지닌 혁명가였다. 나 보다는 나이가 다섯살이나 우이고 일본에 가서 공부도 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내색은 전혀 내지 않고 우리가 주는 과업을 언제나 성실하게 받아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김혁을 각별히 아끼고 사랑하였다.

김혁은 1928년 여름부터 차광수와 함께 류하현일대에서

활동하였다. 그들의 지도로 고산자동성학교에 사회과학연구회(특별반)가 나오고 반제청년동맹지부가 조직된것도 이무렵이었다.

그때 김혁은 인류진화사와 세계정치지리, 문학, 음악과목의 강의를 담당하였다. 고산자의 청년학생들속에서 그의 인기가 대단하였다.

내가 감옥생활을 마치고 동만쪽으로 나갈무렵에 김혁은 고유수와 길림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조직이 준 과업을 집행하고있었다. 나는 돈화로 가면서 그에게 서면으로 강동, 길림, 신안툰의 혁명조직들을 지도하면서 새 출판물발간을 준비하라는 일거리를 더 맡기였다.

얼마후 돈화에서 일을 마치고 카룬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혁을 찾아갔더니 그는 우리가 준 과업을 착실하게 수행해나가고있었다. 내가 옥중에서 무르익힌 생각과 카룬에 가서 할 사업내용을 이야기했더니 그는 흥분해서 자기도 당장 나를 따라 카룬으로 가겠다고 하였다. 나는 카룬으로 오되 말은 일을 다 수행한 다음 천천히 뒤따라오라고 하였다. 김혁은 몹시 서운해하면서도 내 말대로 신안툰에 그대로 눌러앉아 새 출판물발간준비를 다그치였다. 그런 다음에야 카룬에 왔다.

카룬회의가 있는 후 우리는 새 출판물을 발간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키였다. 새로운 혁명로선이 일정에 오르고 그 실현에

로 대중을 조직동원할 사명을 지닌 첫 당조직이 세상에 태어난 조건에서 그 사상적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는 출판물을 발간하는것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업으로 나섰다.

김혁은 이런 사정을 잘 알고있었으므로 카룬에 와서도 밤잠을 자지 않고 출판물에 낼 원고를 썼다. 그의 제의에 따라 새 출판물의 제호를 《볼셰비크》로 달았다.

우리는 《볼셰비크》를 잡지형식으로 만들어 대중을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면서 물질적준비를 충분히 갖춘 다음 점차 신문형식으로 크게 만들고 부수도 늘이기로 계획하였다. 1930년 7월 10일에는 마침내 《볼셰비크》 창간호가 세상에 나왔다.

이 잡지를 공청, 반제청년동맹 지부들과 여러 반일혁명조직들, 조선혁명군 소조들에 배포하였으며 우리가 장악하고있는 학교들에도 보내어 교재로 리용하도록 하였다. 내가 카룬에서 한 보고를 해설하는 글도 그 잡지에 실리였다. 카룬회의방침을 소개하고 선전하는데서 《볼셰비크》가 참으로 큰 역할을 하였다. 처음 얼마동안 월간잡지형식으로 발간되던 《볼셰비크》는 그후 발전하는 혁명정세와 독자들의 요구에 따라 주간신문으로 되였다.

김혁은 《볼셰비크》의 첫 주필로서 카룬을 떠날 때까지 원고집필로 밤잠을 거의 자지 않았다. 불덩이같은 정열가여

서 좀처럼 휴식이라는것을 몰랐다.

그러다가 그는 조선혁명군 소조를 책임지고 할빈으로 갔다. 김혁이 할빈에 파견된것은 1930년 8월초였다. 길림, 장춘, 류하, 흥경, 회덕, 이통일대에서 주로 활동해온 그에게 있어서 할빈은 생소한 고장이였다. 나도 이 도시에 대해서는 별로 파악이 없었다. 우리는 길림에 있을 때부터 할빈을 중시하였다.

이 도시의 주민구성을 보면 로동계급이 많았다. 로동계급속으로 들어가자면 장춘이나 할빈과 같은 큰 도시들에 대담하게 진출하여 우리의 력량을 키워야 했다.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과 중동철도를 공격한 군벌의 배신적인 반쏘행위를 반대하는 투쟁과정이 보여준바와 같이 할빈의 로동계급과 청년학생들은 혁명성이 강하였다. 이런 고장에 가서 줄만 잘 늘이면 많은 군중을 조직에 묶어세울수 있었다.

우리가 할빈을 중시한것은 거기에 국제당련락소가 있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내가 길림육문중학교에 조직한 공청과 련계를 가지고있던 국제당산하의 공청조직도 할빈에 있었다. 국제당과의 련계를 가지자면 어차피 이 도시에 우리의 통로를 내고 할빈을 우리가 마음대로 드나들수 있는 곳으로 개척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다음호에 계속)

조국해방과 민족의 운명

겨레가 해마다 뜻깊게 맞이 하고있는 8월 15일은 일제의 군사적강점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구원되고 민족번영의 새 력사가 펼쳐진 력사적인 날이다.

조국해방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민족사적사변이었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우리 민족은 외래침략자들에게 국권을 빼앗긴것으로 하여 일제의 군사적강점밑에서 망국노의 피눈물을 흘리며 신음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무력으로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겨레의 민족적 자주권을 빼앗고 조선인민을 영원히 식민지노예로 만들려고 날뛰었다. 극악무도한 일제의 군사적강점으로 말미암아 조국은 말그대로 인간생지옥으로 변하였으며 우리 민족은 말과 글, 조상전래의 풍속과 조선사람의 이름마저 말살당한채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비극적운명을 강요당하였다.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지 아니면 죽어야 한다.》는것이 조선인민에게 차려진 운명이었고 우리 민족은 사느냐죽느냐 하는 갈림길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민족의 운명이 생사기로 놓여있던 암흑의 그 시기 나라와 겨레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제와의 전면대결전을 선포하신분은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시였다.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의 100만대군과의 치렬한 혁명전쟁은 인류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간고하고도 준엄

한 사생결단의 싸움이였다.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강적인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무장으로 대결한다는것은 보통의 상식으로써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였다. 걸음걸음 총검의 숲을 헤치고 사선의 고비를 넘어야 하는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길은 결코 그 누구나 걸을수 있는 길이 아니였다. 순간순간 뒤따르는 아슬아슬한 위험, 하루에도 수십차례 집요하게 달려드는 적들과의 전투, 가슴아픈 희생, 강추위, 굶주림...

하다면 그 무엇이 위대한 수령님으로 하여금 그토록 모진 고난과 시련이 끊임없이 겹쳐드는 항일의 전구에 거연히 서게 시게 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그 누구도 아닌 자신께서 책임지시였다는 숭고한 자각이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교령의 빙설속에서도 주저않지 않고 기를 쓰고 살아서 혁명을 할수 있었다고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절불굴의 혁명적신념과 의지, 하루빨리 도란에 빠진 인민의 운명을 구원해야 한다는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시고 20성상 일제와의 결사전을 벌려 조국을 해방하시였다.

조국해방[주체 34(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사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은 력사적사변이었다. 조국이 해방됨으로써 민족수난의 암흑시

대는 영영 끝장나고 우리 인민은 나라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되었으며 우리 조국은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위용떨치게 되었다.

이 나날에 우리 인민은 해방 후 짧은 기간에 건당, 건국, 건군위업을 실현하여 새 조국건설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고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끊임없는 대고조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전진과 혁신의 한길로 달려왔다.

세인이 살아있는것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언덕에서 솟구쳐 오르는 핵과 위성을 보유하고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며 사회주의강국을 보란듯이 건설하고있다.

진정 조국해방의 그날이 있어 조국은 온 세계가 경탄의 눈길로 바라보는 강국의 지위에 올라서고 유구한 민족사에서 가장 빛나는 번영의 시대를 맞이할수 있게 되었다.

하기에 우리 겨레는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민족재생의 새봄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에 휩싸여 그이의 조국해방업적을 깊은 감회속에 다시금 돌이켜보고있다.

사회과학원 실장 유병호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오늘 우리 조국에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천만시련을 이겨내며 사회주의강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조선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깃들어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그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전반구성과 내용이 인민대중중시의 관점과 립장, 인민대중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일관되어있기때문이다. 다시말하여 이 사상은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주체적인 견해,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에게 철저히 의거하여 풀어나갈데 대한 주체의 원리, 인민대중의 리익을 기본으로 내세울데 대한 요구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구현하고있다.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

하기에 조국에서는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으로, 혁명적당풍으로 내세우고있다.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는 인민관에 의하여 인민의 존엄과 지위는 최상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으며 인민을 위한것, 인민적인것이 가장 정의로운것으로 되고 최우선시되고있다. 모든 정책작성과 집행에서 인민의 요구와 리익이 절대적기준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 재부들이 철두철미 인민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있는것이 조국의 현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사상을 천명하시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우리 인민을 높이 받들어 혁명앞에 충실할것을 맹약하시며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으로 온 나라가 령도자와 뜻도 정도 숨결도 함께 나누는 혼연일체의 대가정을 이루도록 이끌어주셨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좌우명으로 삼아오시고 신조로 지켜오신 이민위천을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 인민관이라고 부르시며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한 사랑의 길을 걷고계신다.

인민에게 정을 주시고 열을 주시는 그이의 시간에는 낮과 밤이 하나로 이어져있고 명절날, 휴식일이 따로 없다.

인민의 행복이 끝없이 넘쳐흐르는 오늘의 문수물놀이장을 위하여 그이께서는 낮에도 수시로 건설장을 찾으시여 정력적인 지도를 주시고 깊은 밤에도 또다시 건설장을 찾으시여 미흡한 개소들을 바로잡아주시느라 어느덧 새벽을 맞게 되였다. 푸름푸름 동이 터오는것을 아시고서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는가고 말씀하실 때 일군들은 뜨거운것을 쏟고야말았다.

인민을 위해 그이께서 바치시는 이러한 헌신속에 조국땅에는 인민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랐다.

각지에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양로원, 전쟁로병보양소들과 로동자합숙들이 일떠서고 우리가 만든 책가방을 멘 아이들이 학교로 오가고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큰물피해를 입었던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에 사회주의선경거리, 선경마을들이 일떠서 사람들을 놀래웠고 올해에는 외신들이 그렇게도 일떠설수 없다고 하던 려명거리가 일떠서 사회주의만복의 별천지를 펼쳐놓았다.

온 나라의 거리와 마을들에서 인민이 심장으로 터치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는 인민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나가는 조선의 모습을 다시한번 뚜렷이 보여주었다.

오늘 도처에 일떠서고있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생산기지들과 대기념비적창조물들, 행복의 웃음소리넘치는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문화휴식터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이것을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틀어쥐고나가있기에 조국땅우에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는 것을 말해주고있다.

본사기자 한신애



참관기

무진막강한 군력을 다져주시여

-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아서 -

오늘 영웅적조선인민군은 그 어떤 제국주의강적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무진막강한 혁명강군으로 그 위용을 떨치고있다. 그 위용은 일찌기 주체49(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대한 현지지도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때시고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시고 선군의 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헌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얼마전 우리는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면서 그것을 더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우리가 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69호실에 들어서니 호실벽면에는 최전연에 위치한 오성산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그이의 사진문헌을 우러르는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먼저 당시 1990년대초 공화국이 처하고있던 준엄한 정세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무너지고 천만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시자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이제는 조선의 운명이 시간문제라고 떠벌리며 빨라서 3일, 보통 3달, 늦어서 3년이면

조선은 무너진다고 호언장담하였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면서 강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이지 최악의 역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시고 그 위력으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놓으셨습니다. 당시 다박술초소에 대한 현지시찰로 선군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 나가시려는 드팀없는 의지를 온 세상에 선포하신 그이께서는 그때로부터 최전연의1211고지와 오성산, 초도를 비롯한 수많은 인민군초소들을 찾고 찾으시며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선차적힘을 돌리셨습니다.》

강사의 해설을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성산의 칼벼랑길과 철령을 넘고넘으시며, 사랑하는 병사들을 찾고찾으시며 그들을 수령결사옹위정신이 만장약된 사상과 신념, 배짱의 소유자들로, 사회주의조국을 금성철벽으로 지켜나가는 역적의 수호자들로 키워주신 그이의 모습이 뜨겁게 안겨들었다.

우리는 이어 수령결사옹위의 성스러운 길에서 생을 마친 길영조영웅에 대해서와 엄복순가정, 박용철8형제를 비롯하여 수많은 군인가정들에 대하여 그리고 세찬 불길속에서 구호나무를 목숨바



쳐 보위한 무재봉의 17명 영웅들을 비롯한 영웅들의 투쟁이야기를 강사로부터 들으며 전시된 사진물, 자료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았다.

우리가 들어선 70호실에도 인민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다지시기 위해 최전방 초도방어대,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 조선인민군 해군함선 등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들과 훈련에 열중하는 인민군군인들의 사진자료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참관자들과 함께 호실을 돌아보는 우리에게 강사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군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나라의 군수공업발전에도 특별한 힘을 넣으셨습니다.

언제인가 그이께서는 국방공업에 많은 자금을 돌려야 하는 문건을 받으신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장군님께서선군인민들이 힘든 강행군을 하고있는 때에 문건에 수표하자니 가슴이 아파 견딜수 없다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방력



을 강화하여 나라를 지키고 사회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이제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게 될 때 오늘의 가슴아팠던 사연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자고, 그러면 인민들은 리해할것이라고 하시며 문건에 수표하시였습니다.》

군수공업발전을 위해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를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우리는 참관자들과 함께 무장장비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호실에는 미국이 공화국의 위력앞에 패배의 쓴맛을 보지 않으면 안되었던 자료들도 전시되어 있었다.

우리는 미국이 경수로제공과 중유제공 등을 약속한 조미기본합의문을 내지 않으면 안되었던 자료들, 미합중국대통령이 보내온 담보서한, 선제 타격이요 뭐요 하며 오만하게 날뛰던 미국이 선제 타격과 타격방식도 결코 미국만의 독점물이 아니며 인민군대의 타격에는 한계가 없고 그 타격을 피할 자리는 이 행성우에 없을것이라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성명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그 전쟁계획을 철회한 사실 그리고 그에 대해 세계의 보도계가 《북조선과의 대결에서 미국은 〈무쇠마치〉가 아니라 가공소재가 되었다. 조선의 무쇠마치가 미국이라는 소재를 마음대로 두들겨 가공하고있다.》고 대서특필한 사실들을 시종 통쾌함을 가지고 가슴에 새기었다.

우리는 무진막강한 군력으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침략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며 그이의 불멸의 선군혁명업적은 영원히 길이 빛날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참관자들과 함께 호실을 나섰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최기철

조국통일과 3대헌장

오늘 겨레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물리치며 조국통일운동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신 20돛을 맞이하게 된다.

이날을 맞으며 온 겨레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자주통일위업실현을 위해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심을 금치 못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86(1997)년 8월 4일에 발표하신 력사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을 계승하여 수령님의 필생의 념원을 반드시 실현하고 온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는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어려있는 통일대강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먼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하시였다.

로작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해서와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국제적지지와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신데 대하여 지적되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운동에서 항구적으로 들고 나가야 할 3대헌장으로 정립하시였다.

또한 로작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세우시어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시고 더욱 강화하신데 대해서도 지적되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다음으로 조국통일3대헌장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로작에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해결할데 대한 문제,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세워 민족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고 강화할데 대한 문제,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할데 대한 문제, 련방제 방식에 기초한 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할데 대한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다음으로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해서도 밝혀주시였다.

로작에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인 국면을 열어나가자면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동족과 힘을 합쳐 외세를 반대배격하는 길로 나갈데 대해서와 북남사이의 정치적대결상태와 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할데 대해서 그리고 조선문제를 옹계 해결하는데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나라들도 조선의 통일을 돕는 성실한 립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데 대해서 지적되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끝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은 순탄하지 않지만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림으로써 7천만겨레가 통일된 조국강토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력사의 그날을 앞당겨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북과 남, 해외의 조선동포모두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문헌이다.

온 겨레는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45돛과 10.4선언발표 10돛이 되는 올해에 민족의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남룡

백두산 8경

조선민족의 녀이 깃들어있고 조선혁명의 뿌리가 내린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천하절경들이 《백두산8경》으로 명명되였다.

백두산8경은 다음과 같다.

① 백두산의 해돋이(백두일출)

백두산의 일만경치 가운데서도 제일먼저 손꼽히는것은 이른새벽 어둠을 밀어내며 눈부시게 떠올라 온 누리를 붉게 물들이는 백두산의 해돋이이다.

백두산의 해돋이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찬연한 빛발로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엄한 모습이 그대로 안겨오는듯 하여 끝없는 걱정을 자아낸다.

② 향도봉의 친필글밭(향봉친필)

민족의 녀이 깃들어있고 조선혁명의 피줄기가 맥맥히 흐르고있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면서 제일먼저 눈에 뜨이는것은 향도봉에 새겨진 《혁명의 성산 백두산 **김정일**》이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활달한 친필글밭이다.

힘차게 휘날리는 대형붉은기를 련상시키는 향도봉에 새겨진 친필글밭은 백두의 담력과 배짱으로 자주의 기치높이 내 나라, 내 조국을 빛내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숭엄한 감정으로 되새겨보게 한다.

③ 백두련봉의 웅장한 자태(련봉웅자)

백두산3대장군을 상징하는듯 나란히 솟은 장군봉, 향도봉, 해발봉을 주봉으로 하는 216개의 크고작은 봉우리들이 만리창공에 치솟은 백두련봉의 웅장한 자태는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과 선군조선의 위용을 높이 떨치는듯 한다.

④ 백두의 칼바람(백두렬풍)

한번 불어치면 만리창공에 세기의 백설을 휘뿜어올리고 천지의 푸른 물줄기로 격랑을 일으켜 바위를 치고 절벽을 들부시며 천심을 울리고 지축을 뒤흔드는 백두의 칼바람!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백두산의 맵짠 칼바람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력사의 광풍을 짓부시고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향

백두산의 해돋이(백두일출)





향도봉의 친필글발(향봉친필)



백두련봉의 웅장한 자태(련봉웅자)



백두의 갈바람(백두령풍)

해 돌진해나가는 천만군민의 불굴의 신념과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는듯 한다.

⑤ 삼천리조국땅이 바라보이는 장군봉(장봉전망)
해발높이가 2 750m인 장군봉은 백두련봉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동시에 우리 나라의 최고봉이기도 하다.

백두밀림을 비롯한 조국산천의 광대한 전경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장군봉마루에 올라서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리라는 결심과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지게 된다.

⑥ 장쾌하고 우아한 천지(천지절경)

압록강과 두만강 등 3대장강의 발원지인 백두산천지는 깎아지른 절벽들을 병풍삼아 지심깊이 내려앉아 맑고 푸른 물에 백두련봉의 천태만상을 비껴담은채 변화무쌍한 자연조화를 일으키며 끝없는 매혹과 경탄을 자아낸다.

새파란 수면위에 련봉의 천태만상이 비끼고 사계절 풍치가 한데 어울려 독특한 자연경관을 이룬 장쾌하고 우아한 천지는 아름다운 삼천리금수강산에 대한 민족적공지를 한껏 느끼게 한다.

⑦ 눈속에 핀 만병초(설중개화)

백두산에는 한여름에도 깊은 골짜기마다 흰눈과 얼음이 남아있어 겨울을 방불케 하지만 흰눈속에

만병초가 활짝 피어있어 백두산의 경치를 더 아름답게 하여준다.

눈속에서도 꽃이 핀 백두산의 만병초는 어떤 풍파속에서도 변심없이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굳센 기상인듯 하여 백두산의 절경을 더욱 부각시킨다.

⑧ 떼지어 노는 천지산천어(군유가어)

백두산천지에서는 세계적으로 제일 큰 산천어들이 떼지어 헤엄쳐다닌다.

백두산천지에서 자라는 산천어표본을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1992년 12월 13일 친히 《천지산천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시었다. 화산분화구에 생긴 못에서 산천어들이 떼지어 다니는것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현상으로서 백두산의 특이한 풍치이다.

사회과학원 실장 박사
부교수 리성



삼천리조국땅이 바라보이는 장군봉(장봉전망)



장쾌하고 우아한 천지(천지절경)



눈속에 핀 만병초(설중개화)



떼지어 노는 천지산천어(군유가어)

높은 의술과 뜨거운 사랑으로

옥류아동병원 심장혈관외과 의료집단은 만리마 시대의 참된 보건일군집단으로 온 나라에 알려져 있다.

병원이 일떠선지 4년밖에 안되지만 그들은 일반 심장혈관수술은 물론 어려운 수술도 손색없이 진행하여 모든 어린 환자들을 완치시키고있다.

하다면 이곳 의료일군들이 지닌 높은 실력은 어

할딱거리는 숨소리...

소녀의 이름은 장은희, 나이는 15살.

한창 꽃망울을 터칠 나이에 하루종일 집에 갇혀 눈물로 세월을 보냈을 은희의 모습을 보는 의사들의 마음은 아팠다.

즉시 협의회가 열리었다. 그러나 누구도 신뜻 자기의 주장을 펴놓지 못하였다. 한것은 선천성심



디서부터 오는것인지.

1년전 옥류아동병원 심장혈관외과로는 북부 피해지역에서 온 한 소녀가 아버지와 함께 들어 섰다.

새파래지다 못해 새까매진 얼굴, 보라빛입술, 불어난 손가락과 발가락들, 당장 떼울것만 같이

장병중에서도 제일 위험한 팔로4증후군환자들과 운데서도 은희는 지금까지 그들이 당해본적이 없는 중환자였던것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생명까지 잃을수 있는 위험하면서도 책임적인 수술인것으로 하여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떠돌았다.

바로 이때 협의회 of 무거운 공기를 깨뜨리며 리

- 가따가 검기로 밍도 검을가
겉만 보고 속을 경솔히 판단하는
것을 경계하여 이르는 말.

- 나무에 잘 오르는자가 나무에서
떨어져 죽고 해염 잘 치는자가 물에
빠져 죽는다

자기의 능력을 지나치게 믿고 경
솔하게 행동하다가 큰 실수를 한다
는것을 경계하여 이르는 말.

조선속담 (경솔함)

- 값도 모르고 싸다(누르다) 한다
실지 일의 사정은 잘 알지도 못하
면서 경솔하게 이렇다저렇다 말함을
비웃어 이르는 말.

- 팔죽단지에 생쥐 달랑거리듯
무엇인가 미련이 있고 잊지 못하

여 자주 경망스럽게 드나드는것을 비
겨 이르는 말.

- 떡보 뵈고 배부르다 한다
미리부터 경솔하게 행동하는 사람
을 비웃어 이르는 말.

- 잔내비 밥짓듯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부산을
떨며 경솔하게 행동하는것을 비겨 이
르는 말.

철진과장의 목소리가 모두의 귀전에 울려왔다.

《사람들은 흔히 환자치료라고 하면 의술과 약을 먼저 꼽는다. 그러나 그 어떤 의술과 명약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소생의 힘, 새 생명을 찾게 하는 기적의 원천은 뜨거운 사랑이다.》

과장의 말은 주저하고 동요하던 의사들의 심장에 불을 달았다. 심장혈관집단은 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가능성을 론하기 전에 무조건 해야 하며 꼭 성공해야 한다는 용단을 내리고 북변땅의 소녀에게 새 심장을 주기 위한 힘겨운 전투에 진입하였다.

모두가 단순히 환자이기 전에 자기의 혈육으로 은희를 품어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변시킬 수술방법을 모색하며 고심어린 지혜를 합쳐나갔다.

불보다 뜨거운 이들의 사랑에 의해 은희의 심장수술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수술후에도 부과장 김철진을 비롯한 과의 의사들은 늘 생사를 다루는 은희의 집중치료를 맡아 언제 한번 발편잠을 자볼새 없이 자기 심장을 초볼처럼 태워 소생의 박동을 더해주었다.

집중치료실의 간호원들도 은희에게 하루빨리 기쁨과 웃음을 안겨주기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여 돌보아주었다. 심장의 박동소리에 항상 귀기울이며 한밤을 꼬박기 새우고 입맛이 떨어질새라 색다른 음식과 과일, 당과류들로 혈육의 정을 기울인 그들의 남모르는 헌신이 있어 은희의 병상태는 더욱 빨리 호전될수 있었으며 건강한 몸으로 대지를 활보하게 되었다.

은희만이 아니다. 죽음의 문어구에 있던 많은 어린이들이 심장혈관외과의료집단의 높은 실력과 뜨거운 사랑이 낳은 기적에 의해 생의 활력을 되찾고있다.

이들이 지닌 높은 의술은 결코 어제오늘에 생긴것이 아니다. 평양의학대학병원(당시)에서 과가 조직될 때까지만 해도 과의 심장혈관수술수준은 그리 높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과에서는 어린이심장병치료에서 세계를 압도할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실력제고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왔다. 기술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다른 병원들과의 협의회를 자주 가지였으며 그 과정이 치료사업과 밀접히 결부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어학수준을 높이기 위해 회진을 비롯한 일상 대화를 외국어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어떤 때에는 한건의 수술을 위하여 초시계를 놓고 탁상모의훈련만도 수십차례나 진행한 이들도이다.

뿐만아니라 의료일군들이 모든 환자들을 자



기의 혈육으로 여기고 의료봉사에 정성을 다하도록 하였다.

그러한 나날이 있어 심장혈관외과의료집단은 오늘 팔로4증후군, 에브스타인기형, 총폐정맥환류이상증, 대동맥교착증과 같은 세계적수준의 수술도 막힘없이 하고있다.

부과장 김철진은 말하였다.

《높은 실력, 그것은 단순히 집도경험이나 지식으로만 가지게 되는것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온갖 정성을 다할 때 새로운 수술방법도 탐구해낼수 있으며 환자의 생명도 담보될수 있는것이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방문기

웃음과 노래 차넘치는 야영소에서

얼마전 우리는 강원도 문천시의 바다기슭에 자리잡고있는 강원도12월6일소년단야영소를 찾았다. 척 보기에 이 곳은 명당자리에 아이들의 야영기지, 보급자리가 들어앉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도록 경치도 좋고 건물 또한 훌륭했다. 특히는 야영소건물들이 바다를 끼고있는 지대적특성에 맞게 파도를 헤가르는 듯배로 형성되었는데 볼수록 특색있었다.

우리는 야영소소장 김춘미의 안내를 받으며 야영소구내로 들어섰다. 야영소의 홀에 들어선 우리는 최전연초소로 달리던 야전차를 세우시고 야영가는 아이들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영상미술작품앞

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는 우리에게 소장은 《지난해 우리 야영소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이 영상미술작품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며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나온 노래구절이지라고 뜨겁게 외우시며 것처럼 어려운 나날에도 아이들의 얼굴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질세라 마음쓰신 장군님의 뜻을 잊지 말

고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우리가 지켜주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야영소의 복도벽들마다에 있는 재미나는 직관물들에 눈길을 모으고있는데 어디선가 아이들의 쟁쟁한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곳은 아이들이 즐겨찾군 한다는 중





료리실습실(왼쪽)과 종합지식보급실(가운데),
화면반주음악실(오른쪽)에서

합지식보급실이였다. 이곳에서는 한창 학생들이 서로 마주보며 자기 고장의 특산식물들과 명승지를 겨끔내기로 이야기하고있었다. 금강국수나무, 이천영웅은행나무, 안변의 느티나무

그리고 금강산이며 송도원, 시중호... 음악실과 화면반주음악실에서도 학생들은 자기들의 재능을 꽃피우고있었다. 기타를 배운지 얼마 안된다고 하는 강원도 문천학원 초급 3학년 학생인 오정향은 제법 노래반주를 숨씨있게 하였고 그런가 하면 리유정 역시 특색있는 어은금연주를 뽑내고있었다.

학생들의 담임교원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비록 부모가 없지만 나라의 혜택속에 훌륭하게 자라고있다고 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두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뿐아니라 노래 또한 잘한다고 하였다.



여러가지 체육활동도 진행한다.

실지 화면반주음악실에서 학생들의 노래를 들어 보았는데 교원의 말그대로 학생들은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멋들어지게 잘 불렀다.

우리는 행복에 겨워 마음껏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과 헤어져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넓혀가는 전자열람실을 거쳐 전자오락실, 료리실습실에도 들리였다. 전자열람실에서는 학생들이 조용히 학습하고있었지만 전자오락실은 그들의 웃음소리로 떠나갈듯 하였다.

료리실습실 역시 다름바 없었다. 마치도 료리사가 다 된듯 으시대며 밥과 국, 여러가지 찬들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는 학생들의 모습도 우스웠지만 남학생들이 해놓은 선밥과 투박한 료리 또한 웃음이 절로 나게 하였다.

오후에 야영소에 입소한 학교별대항으로 진행되는 바줄당기기경기가 아주 흥을 돋구었다. 경기도 경기이거니와 응원 또한 굉장하였다. 체육경기일정표를 보니 다음날에는 축구, 배구경기를 하는것으로 되어있었다. 멋들어지게 꾸려진 야외로라스케트장에서는 학생들이 아직 동작이 서툴어서 궁둥방아를 찢고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학생들은 배를 그려안고 돌아갔다.

어디 가나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차넘치는 야영소였다.

숨씨전람회를 앞두고



호실정돈도 모가 나게



만화영화에 심취되어

아이들과 함께 웃음속에 야영소를 돌아보는 우리에게 이곳 소장은 여름에는 바다야영이 시작되고 또 겨울에는 겨울철야영도 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지금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더 차넘치게 될것이라고 하는것이였다.

우리와 만난 이천군 무릉고급중학교 학생들은 겨울철야영에 꼭 다시 오겠다며 그러기 위해 공부와 조직생활을 더 잘하고 좋은 일도 더 많이 하겠다고 하는것이였다.

사계절 학생들의 웃음과 노래소리가 그치지 않고 울려퍼질 아이들의 사랑의 집, 행복의 보금자리를 기쁨속에 바라보며 우리는 이곳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김택성



맏아들 김철



둘째아들 김광철

김택성의 가정

3부자유술가 가정

세상에는 요술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한다. 그렇게 놓고 볼 때 3부자가 다 김일성상계관인, 인민배우들이던 평양교예학원 강좌장 로력영웅 김택성과 그의 아들들인 국립교예단의 배우 김철, 김광철가정의 삶은 찬탄할만 한 것이다. 물론 이 가정에서 쉽지 않은 요술의 첫걸음을 뗀 사람은 집안의 가장인 김택성이다. 원래 그는 어느 한 기계공장에서 선반공으로 일하였는데 그에게는 공중비행에 대한 남다른 취미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그가 그 꿈을 실현하여 교예배우로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있던 어느날이었다. 뜻밖에도 그가 출연하는 교예종목을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시고 김택성에게 앞으로 나이가 들면 무엇을 하겠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었다.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는 그에게 요술을 하면 어떻겠는가고 다시 따뜻하게 물으시었다.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의 다심한 사랑속에 그는 요술배우가 되었으며 그때로부터 그의 인생은 요술과 함께 빛을 뿌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요술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 그의 요술이란 고작해서 손재간이나 간단히 부리는 것이었다.

김택성은 《당시 저의 공연을 본 사람들은 손재간이나 부리는 것뿐이지 새맛이 없고 볼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그 말을 듣고보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민이 사랑하는 요술작품을 내놓을 수 있을가를 늘 생각하면서도 다른 묘



상식

건망증을 고치는 비결

건망증은 기억하는 방법으로 극복해야 한다. 우선 요점을 기록해두어야 한다. 중년기에 들어선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꼭 적어두는 습관을 붙여야 한다. 레를 들어 다음날 아침에 무엇을 가지고 어디에 가야 한다

책을 찾지 못하고있었습니다.》라고 당시의 자기 심정을 이야기하였다.

그의 심정을 헤아려주시신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이시었다. 그이께서는 그의 요술에서 나타난 결함을 일깨워주시면서 참신한 시대정신과 인민들의 생활을 반영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그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하여 그후 그는 조국인민은 물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질찬을 받는 수많은 작품들을 내놓을 수 있었으며 제16차 국제현대요술축전에서 1등과 함께 《세계요술왕》의 칭호도 수여받게 되었다.

이렇게 요술배우로 성장하는 나날에 김택성의 가슴속에서는 자기 가정을 요술가 가정으로 되게 하려는 욕망이 점차 커지게 되었다. 그리자면 아들모두를 요술배우로 키워야 했고 또 며느리들도 요술배우들로 선택해야 하였는데 뜻대로 잘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물론 맏아들인 경우에는 크게 다른 것이 없었지만 둘째 김광철은 사정이 달랐다.

어릴적부터 미술에 취미를 붙이고 미술가가 되기를 바란 광철의 미술적재능은 전문가들의 인기를 모으고있었던 것이다.

둘째아들의 이런 성장은 김택성의 마음을 한쪽으로는 기쁘게 하면서도 다른쪽으로는 허전하게도 하였다. 사실 그의 마음속에서 늘 고패치는 것은 자기 가정이 요술가 가정이 되어 대를 이어 나라의 요술을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믿음과 사랑을 빛내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아버지의 마음속 생각을 누구보다 먼저 헤아려주시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그때 다른 기관에서 일하던 저를 소환하여 요술무대에 서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습니다. 하여 저도 요술가 가정의 한자리를 든든히 차지하게 되었고 형님처럼 요술가 처녀와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김광철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속에서 자기네 3부자유술가 가정은 국내외의 수많은 공연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었고 제20차 국제현대요술축전에서 아버지는 요술 《생활문화》와 《대형꽃바구니》에 출연하여 또 다시 《세계요술왕》 칭호와 왕관 및 증서를 받았고 자기는 《주패재주》와 《양산재주》 등을 가지고, 형은 《비둘기재주》와 《신기한 함》 작품을 가지고 축전의 최고상인 그랜드상과 1등컵을 수여받았다고 하였다.

3부자유술가 가정은 자만을 모르는 가정이다. 그들은 가정에서는 다정한 아버지, 사랑하는 자식들사이이지만 훈련장에 나서면 참으로 엄격한 승과 승벽을 닦는 제자간의 관계이다.

그들 3부자는 오늘도 새로운 창조가 없는 반복은 죽음이라는 관점 밑에 인민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요술작품을 더 많이 창조하기 위해 끝없이 줄달음치고있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요술교육을 주고있는 김택성



도시인의 해수욕장에서

《이 물이 진짜 바다물일까?》
운하바다물수영장을 처음 찾는 사람들은 의례히 이런 의문부터 품는다.

많은 사람들이 한여름철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조선동해와 조선서해의 해수욕장들로 찾아가고있을 때 평양의 한복판에 세워진 바다물수영장으로도 날마다 많은 손님들이 모여들고 있다.

얼마전 우리는 도시안에서 해수욕을 즐기고싶은 마음을 안고 바삐 걸음을 옮기는 손님들과 함께 보통강구역의 운하바다물수영장으로 향하였다.

벌써 수영장에는 손님들이 적지 않았다.

수조밑바닥까지 들여다보이는 맑은 바다물에 달아오른 몸을 잠그고 슬며시 물맛까지 보며 염도를 가늠해보는 청년도, 민물에서 수영할 때보다 몸이 더 잘 든다고 좋아하는 중년여성도, 작

은 발동선에 오른듯 구명대에 올라앉아 물장구를 치는 꼬마들도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우리는 봉사원의 안내를 받으며 수영장을 지나 여러 한증방들을 돌아보았다.

동굴과 같은 인상을 주는 황토방과 은은한 불빛이 흘러나오는 소금방에는 돛자리를 편 뜨끈한 방바닥에 목침을 베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열감이 적은 소나무방에서는 장기와 주패, 윗놀이를 즐기는 젊은 측



들도 있었다.

화면반주음악소리가 울려나오는 1층식당에서는 수영을 하고 나온 손님들이 대동강맥주와 숯불고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2층으로 오르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보니 그곳은 일광욕실이었다. 채광이 좋은 천정유리로 흘러드는 햇빛은 이곳의 모래밭이며 자갈밭을 한껏 달구어놓았다. 봉사원은 이 모래는 바다기슭의 모래라고 하였다.

모래밭에 앉아 다리를 쭉 펴고 그우에 작은 모래산을 쌓아놓고있는 한 녀성은 우리에게 자기는 류마치스관절염이 있는데 이 치료가 정말 좋다고 말하였다. 그러거나말



거나 곁에 있는 어린 총각애와 처녀애는 모래성쌓기놀이로 정신을 팔고있었다.

우리와 만난 수영장봉사원인 차금향은 어떻게 되어 수도의 한복판에 말그대로 해수욕을 할수 있는 희한한 수영장이 생겨났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었다.

일찌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바다 먼 도시 평양에 바다물을 끌어들이 시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하실 구상을 안으시

고 바다물리용과 관련한 연구를 심화시키고있는 국가나노기술국 연구사들의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주시었다.

그 나날에 나라의 첫 장거리바다물수송관이 조선서해에서 평양으로 뻗어가게 되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룡라도에는 룡라팝등어관이, 보통강구역의 운하지구에는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바다물수영장이 일떠서게 되었다.

차금향은 뜨거운 격정에 목이 메어 이렇게 말하였다.

《진정 평양의 해수욕장인 운하바다물수영장의 바다물은 단순한 바다물이 아니라 사랑의 물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하기에 사람들은 바다에서 날아예는 갈매기처럼 한번 오면 또 오고싶어하고 오면 좀처럼 이곳을 뜨지 못하고있습니다.》

글 봉사기자 연 옥
사진 봉사기자 리은별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어

원산제1중학교 교수지도원 류시렬의 하루일과는 교수참관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장악지도사업을 개선하기



류시렬

위해 구축해놓은 학교컴퓨터구 내망을 통하여 어느 교원이 수업을 어떻게 하며 우점과 결점은 무엇인가를 알아본다.

교원들의 교수교양사업과 신입교원들의 교수방법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하여 호상교수참관사업과 매주 진행하는 강좌

상식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1920년대 중엽 국외에서 민족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표방하여 조직한 운동단체를 말한다. 3부라고도 한다.

3. 1인민봉기이후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중국 동북지방과 로씨야 연해주지방으로 망명하여 계속 독립운동을 벌리면서 수많은 민족운동단체들을 내오고 그를 통하여 활동을 전개하였다.

참의부는 통의부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조직되었다.

의 날 운영 등 교육방법개선을 위한 사업은 물론 교원들의 후방사업까지 관심을 돌리며 그는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 있다.

강의면 강의, 체육이면 체육, 씨클이면 씨클 등 모든 면에서 막힘이 없고 일단 맡은 일은 높은 수준에서 완전무결하게 해놓는 그에게 학교의 교원들은 《팔방미인》이라는 별호까지 붙이였다고 한다.

팔방미인, 그것은 후대들을 위해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어주는 그의 막힘없는 일본새와 그밑에 놓여있는 높은 실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그 실력으로 근 40년간을 교단에 서있는 류시렬이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교육사업에 몸을 잡글것을 생각한것은 아니었다.

그가 교원이 될 생각을 한것은 일본에서 살다가 조국의 품에 안긴 다음이었다. 돈 한푼 받지 않고 병치료도 해주고 공부도 시키고있는 조국의 모습은 그에게 커다란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돈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병치료를 받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돈이 없으면 아무리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싶어도 학교에 갈수 없었던 일본과는 너무도 대조를 이루었다.

이런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에서 마음껏 배우고싶은 욕망이 굴뚝처럼 솟구쳐올랐다. 그 열망을 안고 그는 학교와 도서관에서 낮과 밤이 따로없이 책을 보고 또 보며 실력의 높이를 쌓아나갔다.

어느덧 중학교졸업반이 되었다. 서로마다 자기의 지망을 쓰는 동무들의 모습을 보는 시렬의 생각은 깊어졌다. 과학자, 체육인 아니면 배우... 아니었다.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고 싶었다. 하여 그는 자기의 지망을 이렇게 썼다.

《교육자》.

이렇게 되어 김형직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그가 교단에 서던 때를 오늘도 그의 제자들은 잊지 못하고있다.

학교에 새로 배치되어오는 외국어교원에 대한 학생들의 호

정의부는 1924년 겨울 중국 길림성 화전현에서 남만 지방에 널려있던 통의부 등 10여개의 민족주의군사단체들의 통합으로 조직되었다. 정의부는 조선사람들이 많이 살고있던 여러 현을 자기의 관할구역으로 하였으며 각 지역에 총관소라는 자치적인 기구까지 가지고있었다. 이 단체는 반일투쟁을 진행하기 위하여 자기 산하에 6개의 독립군중대를 두고있었으며 화전에 군사정치학교인 화성의숙을 설치하고 독립군간부들을 키워냈다.

신민부는 1925년 3월 북만에서 민족주의자들이 몇개의 군사단체들을 합하여 조직한 민족주의적정치군사단체이다. 이 단체는 북만과 동만의 일부 지역을 차지하고 활동하였다. 신민부는 성동군관학교를 설치하고 군사간부를 키우는 한편 지방주민들속에서 민족주의사상을 퍼

기심은 대단히 컸다. 그러나 방글방글 웃음을 띤 녀교원이 아니라 특한 얼굴로 교실에 들어서 류시렬을 보는 순간 학생들의 부풀었던 호기심은 사그러지고말았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학교의 일꾼인 김영규는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그랬다. 선생님은 엄격하였고 학교가 세워놓은 원칙 앞에서 타협을 몰랐다. 우리가 저렇게 무서운 선생님한테서 어떻게 배울가 하는 생각을 한것은 순간이었다.

그의 강의는 우리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놓았다. 류창한 언어구사와 생동한 실례, 학생들이 이해할수 있게 치밀하게 짠 교수안은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켰었다. 비록 엄하고 한번도 웃지 않았으나 우리는 선생님에게 온넛을 빼앗기고말았다.》

새로운 외국어교원에 대한 이야기는 온 학교에 퍼졌고 학생들은 저마다 엄격한 그 교원에게서 강의받기를 희망하였다.

류시렬은 문법연습문제집과 혼돈하기 쉬운 표현 등 참고서들을 집필하여 강의에 활용하였으며 외국어시청실을 도적인 본보기로 꾸려놓고 외국어교육의 질을 한계단 높이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나갔다. 이

나날에 그는 새 교수방법들을 부단히 창조하고 실험기구와 교편물들을 창안하여 여러개의 증서들을 수여받았으며 중앙10월8일 모범교수자로 되었다.

그가 뿌린 씨앗은 어느덧 열매가 되어 학교의 학생들은 대학입학시험과 7.15최우등상수상자시험에서 전국적으로 앞선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생을 후대교육사업에 바쳐온 그에게 은정어린 선물을 보내 주시였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그를 제12차 전국 교육일군대회 [주체93(2004)년 10월]에 참가시켜주었으며 주체101(2012)년 8월에는 공훈교원의 영예도 안겨 주었다.

오늘도 류시렬은 팔방미인이



신입교원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라는 말을 자기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소중히 간직하고 학생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다.

류시렬의 가정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관
영
관

뜨리기 위하여 활동하였다.

일제와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권력다툼에만 몰두하면서 파벌싸움을 계속하는 행위가 인민들로부터 배격을 받게 되자 민족주의자들은 대중의 불만을 무마하고 저들의 권력싸움을 완화할 목적으로 길림에서 3부통합회의를 열고 1929년 4월에 국민부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였다. 국민부로 통합된 후에도 각파의 우두머리들은 서로 등을 돌려대고 파벌싸움만 하면서 민족주의운동을 저해하였으며 결국은 종말을 고하고말았다.

* * *

돈녕부는 왕과 같은 성 또는 다른 성을 가진 친척으로서 종친부에 들어갈수 없는자들을 위하여 설치한 관청이다.

봉건지배계급은 돈녕부를 설치하여 왕과 같은 성을 가진 친척으로 9촌까지, 다른 성을 가진 친척으로는 6촌까지, 왕비와 같은 성을 가진 친척으로는 8촌까지, 다른 성을 가진 친척으로는 5촌까지, 왕세자의 처와 같은 성을

가진 친척으로는 6촌까지, 다른 성을 가진 친척으로는 3촌까지의 일가붙이들을 관직에 임명하였다.

이자들은 령사(정1품), 판사(종1품), 지사(정2품) 등의 관직을 가지고 봉건 국가로부터 특별대우를 받았다. 여기에는 실무처리를 담당한 관리로서 첨정(종4품), 판관, 주부, 직장, 봉사, 참봉(종9품) 등이 배치되어있었다.

* * *

인민사랑 전하며 변모되는 고장

얼마전 우리는 조국을 방문한 김명순재중동포로부터 자기의 고향 녕원군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하여 우리는 이번호의 고향소식을 평안남도 녕원군으로 정하였다.

읍거리에서 우리를 마중한 군일군 리성호는 《우리 고장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뭐니뭐니해도 녕원발전소부터 꼽아야 할것입니다.》라며 곧장 발전소로 이끄는것이였다. 우리는 차를 타고 산세 험한 평길들을 돌아 한참만에야 목적지에 이를수 있었다. 울창한 수림으로 짝 들어찬 산들사이에 자리잡은 녕원언제는 볼수록 장관이였다. 언제와 주변의 풍치에 감탄을 터치는 우리에게 군의 일군은 녕원언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위치까지 잡아주시고 장군님께서 여러차례나 현지지도하신 곳이라고 말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저기 저수지에 있는 배들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정성> 호와 <미래1>, <미래2> 호입니다.》라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난 시기 창산, 도삼, 승통리를 비롯한 여러리의 병원들이 군인민병원과 멀리 떨어져있는것으로 하여 구급환차치료에서 애로를 느끼고있었다. 그러한 실태를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료보다 빠른 배길로 환자들을 긴급수송할수 있도록 《정성》호를 보내주시었다. 그리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삼리의 학생들이 공부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지난해 통학배 《미래1》,

《미래2》호를 보내주시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정성》호와 통학배들이 도착하는 날 군내 인민들이 뜨거운 걱정과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녕원군인민들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은 수십년전 창산리의 산골마을학생들과 녕원군인민들의 운수문제해결을 위해 보내주신 통학배스와 려객배 《은정216》호에도 뜨겁게 어 려있었다.

걱정에 넘친 군일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정성》호와 통학배들에도 올랐다. 《미래2》호 선장 김남영은 《사실 통학배들을 리용하는 학생이라야 10여명이고 배들이 다니는 거리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말이지 통학배들에는 우리 아이들을 제일 고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깃들어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여러차례나 녕원땅을 찾으시여 군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군내인민들과 후대들을 위해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군내인민들은 고향땅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섰다.

우리는 그것을 군의 여러곳을 돌아보며 잘 알 수 있었다.

몇년전에는 읍지구의 낡은 집들을 헐고 그 자리에 보다 번듯한 문화주택들을 일떠세웠고 군건재 공장에서 생산한 세멘트로 읍지구의 도로들도 새롭게 포장하였다. 그런가 하면 자연흐름식상수도

공사를 진행하여 수질이 좋은 물을 주민들이 언제나 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자강력의 정신으로 지방산업공장들의 설비개건을 진행하여 생산을 더 높은 수준에 올려세웠다. 뿐만아니라 10여정보의 군산림경영소 모체양묘장을 꾸려놓아 군안의 모든 산들을 푸른 숲으로 우거지게 할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으며 남새온실, 양어장, 버섯공장도 손색이 없게 건설하여 놓았다.

그뿐이 아니였다.

군내학생들의 학습장을 자체로 해결할 목표를 내세우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는 종이공장일군의 이야기며 자기 지방의 혼한 원료와 산과일로 생산한 갖가지 제품들이 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는다는 식료공장종업원들의 기쁨넘친 얼굴들과 군내 수요를 충족시키고 남아 다른 군에도 석탄을 보내주고있다는 녕원탄광 탄부들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자기 고향에 대한 이 고장 사람들의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절감할수 있었다.

군의 그 어디를 가보고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이 고장 사람들은 녕원땅에서 사는 긍지를 안고 고향땅을 더 좋게, 더 훌륭하게 일떠세우려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우리는 녕원땅이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마운 은정을 끝없이 전하며 더욱 훌륭히 변모될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이곳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병이 날세라...

녕원고급중학교 학생들

녕원발전소



환자들을 위한 《정성》호



녕원군산림경영소의 일부 (→)





로씨야 캄차뜨까주 뽀뜨로뽀블롭스크시 꾸르가노브거리
21-18 리 리지야고모 앞

이역의 고모를 그리며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중순 평양에서 만났던 조카 주옥이
가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꼭 꿈을 꾸듯만 같습
니다.

글쎄 제 나이 50이 다 되도록 생사여부를 모
르고 살던 고모를 만나보다니...

그때 저를 찾기 위해 고모가 기울인 노력에
대해 해당 부문의 일군으로부터 전해들으며 저
는 눈물을 쏟고야 말았습니다. 고모를 만나니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만난것처
럼 생각되었습니다.



평양에서 나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이 바로
고모의 생일이었지요. 그날 고모는 고국에 있
는 친척들과 정말 헤어지기가 힘들다고, 이제
돌아가면 또 외롭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고 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었습니다. 목메
여 속삭이던 그 모습이 지금도 저의 눈앞에 사
무쳐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정을 더 그리워한다고
이역땅에서 일흔살 가까이 홀로 살아온 고모의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고모는 우리와 헤어지면서 이런 말을 남기
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평양에 더 자주 오겠다. 너를
만나자고 해도 그래, 발전하는 고국의 모습을
더 많이 보자고 해도 그래...》

그 말은 정말로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말이
였습니다.

이번 고국방문기간에 고모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성대히 진
행된 려명거리 준공식에도 참가하였고 룡라팝등
어관이며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랑 다
돌아보았지요.

고모, 기억나십니까. 문수물놀이장을 돌아본
후 고모가 저에게 물어본 말을...

《문수물놀이장에 한번 가보았니?》

제가 《한번이 됩니까? 아마 열번은 더 가서
놀았을겁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고모는 《무
슨 돈이 많아 그렇게 갔었니?》 하고 의문스
러워했지요.

그래서 제가 딸과 함께 문수물놀이장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랑 직장사람들과 같이 갔을 때
찍은 사진이랑 보여주어서야 고모는 머리를 끄
덕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모는 또 이렇게도 물었지요.

《나라에서 려명거리를 비롯한 새 거리들을
무슨 돈으로 다 지었을까? 그렇게 멋있게 지어
서는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주니 정말 리해
가 안된다.》

그때 저는 고모에게 우리 나라의 막강한 국
력과 인민적시책에 대하여 한두마디 말로 이
야기해줄수 없는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고모,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반
공화국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도 감히 우
리를 어찌지 못하고있는것은 선군조선의 무진
막강한 국력에 겁을 먹었기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모도 해외에서 조선민족의 한 성원
임을 잊지 말고 가슴을 쪽 찢고 보란듯이 살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고모, 다음번에 고국에 오면 더 멋진 현실을
보게 될것입니다.

고모가 만리마의 속도로 비약하는 우리 고
국땅을 다시 밟을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
다리겠습니다. 다시만날 그날까지 안녕히 계
십시오.

평양시 서성구역 하신동 64인민반
리주옥조카 올림

전망이 좋은 신의주관광

- 묘향산려행사 사장 최정호와 본사기자가 나눈 문답 -

조국의 서북변에 자리잡고있
는 평안북도 신의주시는 중국의
료녕성 단동시와 압록강을 사이
에 두고있는 도시이다.

주체85(1996)년 12월에 설
립된 묘향산려행사에서는 신의
주관광에 대한 관광객들의 날로
높아가는 수요에 맞게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해나감으로써 그
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의있
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여기
에는 중국 단동시조선족기업가
협회 부회장이며 단동시조선족
경제문화교류협회 부회장인 전
순희동포의 노력도 적지 않게
깃들어있다.

본사기자는 신의주관광과 관
련하여 묘향산려행사 사장 최정
호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였다.

기자: 신의주관광은 국내외
정세의 영향을 받고있는가?

사장: 이 문제는 신의주관광
을 희망하는 사람들 누구나가
제일 알고싶어하는것이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좋은
관광계절에 평온하고 아름다우
며 민족적인 멋이 있는 지역으
로 관광을 다니려고 한다. 신
의주관광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
의 끈질긴 반공화국고립압살책
동속에서도 조선인민이 어떻게
생활하고있는가를 자기의 눈으
로 직접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때문에 국내외의 긴장한 정세
와 상관없이 관광이 잘 진행되
고있다. 한해에 최고 8번이나
오는 관광객들도 있다.

관광객들은 돌아갈 때 우리
에게 인터넷망상에 조선에 대
한 나쁜 자료들이 계속 뜨군 한
다, 조선에서 전쟁준비만 한다
는것과 전쟁이 당장 일어난다
는것 등의 그릇된 주입을 받았

지만 우리는 실지 사람들의 안
정된 생활모습을 보고 조선이야
말로 제일 편안하고 아름다우며
온화한 지역, 진짜 사회주의나
라이라는것을 알고간다고 저저
마다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실시
하고있는 무료의무교육제, 무
상치료제에 탄복할뿐만아니라
집과 직업, 인민들의 살림살이
까지 국가가 전적으로 돌봐주고
있으니 사람들은 모두가 평등하
고 화목하게 살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이 정말 좋은 나라이라고
격찬하였다.

기자: 신의주관광은 구체적
으로 어떻게 진행되고있는가?

사장: 신의주관광은 크게 반
나절, 1일, 1박2일체류관광으
로 나누어 진행되고있는데 가
장 특색있는것이 일명 무사증
관광이라고 하는 반나절체류관
광이다.

반나절체류관광객들은 조국
의 압록강기슭에서 그네뛰기
를 비롯한 조선민속놀이와 떡
치기, 조선민족옷을 입고 사진
찍기 등을 즐겁게 진행한 후 빠
스를 타고 신의주를 돌아보며
기념품을 사기도 한다. 이 관광
에는 중국사람들뿐만아니라 중
국에 사업때문에 왔던 유럽사
람들도 많이 오는데 그 수는
1일체류관광에 비해 거의 두배
나 된다.

1일체류관광의 로정에는 신
의주화장품공장, 신의주민속공
원, 도미술전람관, 신의주시본
부유치원 등이 있다.

신의주시본부유치원을 참관
하고 어린이들의 예술공연을 본
관광객들은 깜짝 놀라면서 명랑
하고 쾌활하며 귀여운 어린이들
을 품에 안고 저마다 기념사진
을 찍군 한다.

1박2일체류관광은 신의주시
에서 남쪽으로 50km정도 떨어
진 평안북도 동림군에 룡색관
광, 생태관광을 실현할수 있게
훌륭히 건설된 동림호텔에 도착
하여 등산을 하고 하루밤을 숙
식한 후 신의주시에 와서 우의
관광로정을 돌아보게 된다.

기자: 신의주관광절기는 언
제인가?

사장: 신의주관광은 년중 진



행되고있는데 그가운데서도
5월부터 10월까지의 6개월기간
이 가장 좋은 계절이다. 12월과
1, 2, 3월에는 관광비용의 10%
를 할인해준다.

기자: 관광안내원들의 역량
은 어떠한가?

사장: 안내원들은 20여명정
도이다. 그들은 대체로 20대,
30대전반기의 청년들이다.

그들은 김일성종합대학 학과
평양외국어대학, 평양관광대학
졸업생들로서 영어와 중국어에 능
하다. 뿐만아니라 정치와 경제,
과학과 문화지식수준도 높아 관
광객들의 말동무, 길동무로서
손색이 없다.

* * *

반드시 이루어질 조국통일



한해두해 먹어가는 나이를 두고 안타까와할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강국건설과 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사회주의강국과 조국통일은 조국인민들뿐 아니라 해외에서

살고있는 우리 동포들이 바라는 한결같은 념원이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이 조국을 어찌보려고 별의별 악랄한 책동을 다하고있지만 우리 조국은 날에날마다 변모되고 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 나는 거의 해마다 조국에 오곤 하는데 정말이지 너무도 몰라보게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은 나에게 커다란 민족적격지와 함께 이런 무진막강한 국력을 가지고있기에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안겨준다.

조국통일, 민족이 일일천추로 바라는 이 념원은 그저 바란

다고 해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서로의 마음과 힘을 합쳐 어떻게 노력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의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이역땅에서도 있는 힘껏 노력하고있으며 조국에 와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선 조국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기도 한다.

나는 비록 나이는 많지만 생의 마지막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통일의 날을 앞당겨오겠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가목사시지부 장병수

사람들의 웃음에 반했다

나는 고국에 처음 와보았지만 낯선 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것은 방문기간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조선 민족이러는데도 있었지만 중요한것은 그들의 웃음에 절로 반했기때문이었다.

비행장과 호텔의 안내원들은 모두 꽃같이 고운 얼굴에 꽃같이 환한 미소를 짓고 우리를 친근하게 반겨맞아주고 극진히 대해주었다.

그들뿐 아니라 뺨스를 타고 거리를 지나가면서 내가 본 모든 사람들도 모두 멋있고 순진해보였으며 웃으면서 다니고있었다.

고국인민들의 웃음진 얼굴모습은 멋진 건축물들과 조화를 이루어 더욱 인상이 깊었다.

나는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여

서 낯선 사람들과 쉽게 접촉하지 못한다. 그러나 고국사람들의 진실한 마음이 비긴 그 웃음은 나에게 그들과 자유롭게 대화도 나누고 내가 알고싶은 모든것을 어렵지 않게 물어보게도 하였다.

그래서 고국방문기간은 비록 길지 않았지만 나는 많은것을 보고 들으며 알게 되었다.

그로부터 나의 견해에 의하면 고국에 대한 서방의 비방중상은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사실 나는 로씨야에 있을 때 조선에서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고까지 생각하였다. 통신, 방송들이 그렇게 떠들어대니 그것을 믿을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고국에 와보니 사람들모두가 태연자약하게 웃음을 지으며 정상적



인 사업과 생활을 하고있었다. 그러니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것은 굳이 묻지 않아도 명백하다.

짧은 시간동안에 고국을 알게한 고국인민들의 그 깨끗하고 진실한 웃음을 나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잊을것 같지 못하다.

로씨야 연해변강고려인통일
련합회 회원 최 이리나

나는 락원을 보았다

고국은 내가 꼭 한번 와보고 싶던 곳이다.

그것은 나의 선조들이 태어난 땅이어서도 그렇지만 국제적인 여론이 특별히 초점을 모으고 서방이 조선에 대해 별의별 비방중상을 다하는 곳이라는 점이 나에게 고국땅을 직접 밟아보고 내 눈으로 확인할 결심을 내리게 하였다.

사실 고국에 오기전에 나의 자식(아들과 딸)들은 고국으로 가려고 한다는 나의 말을 듣고 펄쩍 뛰면서 75살고령의 나이에 어떻게 멀리 갔다오며 가서 불만 한것도 없겠는데 괜히 고집을 한다고 나무라기까지 하면서 며칠동안 말리었다. 나는 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자식들의 권고가 충분히 이해되었다. 역시 그들도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사는것은 아니었다.

내가 회장으로 있는 로인협회 성원들도 나에게 우리 자식들과 똑같은 말을 하였지만 나는 꼭 내 눈으로 고국을 보려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데 정작 고국에 와서 보니 결과는 그쪽에서 들던것과 정반대였다.

고국은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락원이었다.

우선 평양을 주의깊게 살펴보니 안팎으로 깨끗하고 현대적인데다가 공기도 맑았으며 만나는 사람들도 모두 친근하고 인상적이였다. 그들의 얼굴모습과 옷차림을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가난과 불행의 흔적을 조금도 찾아볼수 없었다. 거리의 가는 곳마다에 공원을 비롯한 휴식터들이 자리잡고있었으며 초고층, 고층, 다층살림집들과 건축물들이 특색있으면서도

규모있게 들어앉아있었다.

상점들에는 상품들이 가득차있었고 식당들에서는 민족음식을 위주로 한 음식들을 봉사하고있었다.

나는 참으로 리해가 되지 않았다.

서방언론들이 아무리 새빨간 거짓말을 밥먹듯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고국의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입고다니다 못해 거리에서 죽어가고있다고까지 오도할수 있단말인가.

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였고 중앙동물원과 자연박물관, 중앙식물원,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등도 돌아보았는데 정말 멋있었다.

제일 큰 감동을 받은것은 려명거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려명거리 준공식에 참가하여 나는 고국의 국력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다.

려명거리건설이 시작되던 지난해 3월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고국의 자위적인 첫 수소탄시험과 정정당당한 위성발사를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사상 최대의 핵전쟁연습과 제재봉쇄소동을 미친듯이 벌려놓고있을 때라고 한다. 주체의 최고성지와 잇닿은 뜻깊은 룡남산지구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혁명의 려명이 밝아오는 뜻깊은 곳에 일떠세우는 거리의 이름을 《려명거리》로 명명해주시고 건설을 선포하시였다고 한다.

려명거리건설에서 세계가 알지도 못하고 알수도 없는 주체조선의 필승불패의 전통을 다



시금 파시하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호소따라 이곳에서는 만리마속도가 창조되었으며 온 나라에 만리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나는 서방의 언론전에 눈과 귀가 먼 해외동포들뿐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나라의 인민들이 모두 와서 조선의 이 려명거리를 보라고 말하고싶다.

방대한 함북도 북부과해복구 전투를 벌리면서도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고국의 군대와 인민이 단결된 힘으로 일떠세운 이 웅장화려한 려명거리에서 돈 한푼 내지 않고 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있는가를 본다면 그들은 아마도 서방의 언론전에 등을 돌려대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나는 이제 돌아가면 우리 자식들은 물론 로인협회 성원들에게도 고국은 그야말로 사람들 누구나가 그러보던 락원이라고, 내가 바로 그 락원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려고 한다.

고국인민들은 앞으로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으며 온 세상이 부러워 바라보는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끼르기즈스탄고려인통일련합회
로인협회 회장 김 따따라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

고국방문

《고국에 와보고싶던 소원이 풀리었습니다》

- 래양절경축행사에 참가하였던 재로동포들 -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돌아보는 동포들



《꿈에도 한번 와보고싶던 고국이었습니다. 저의 소원이 이제야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멋있고 훌륭한 고국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끼르기즈스탄고려인통일연합회 황 류드밀라의 이 말속에는 자기뿐만이 아닌 함께 온 동포들과 지난 래양절경축행사에 참가하였던 재로동포모두의 마음도 깃들어있다.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대표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로동자합숙에서



자연박물관에서



중앙식물원을 돌아보며



단, 로씨야원동고려인통일연합회대표단, 감차뜨까변강고려인통일연합회대표단, 재로우주리스크동포대표단, 끼르기즈스탄고려인통일연합회대표단 성원들은 고국에 들어서는 길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향기그윽한 꽃바구니를 드리였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여 절세위인께서 지니시었던 애국의 높은 뜻에 탄복하였다.

그들은 이번 고국방문기간에 경애하는

과학기술전당(왼쪽)과 문수물놀이장(오른쪽)을 돌아보았다.



중앙동물원참관을 기념하여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려명거리 준공식에 참가한것을 크나큰 긍지로 여길것이라고 하였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녀성로동자들이 일하는 깨끗한 생산현장을 돌아보고 훌륭히 꾸려진 로동자합숙과 진달래원에서 로동자들의 생활모습을 목격하면서 그들은 감탄속에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중앙동물원과 중앙식물원, 자연박물관 등을 돌아보면서 동포들은 이렇게 훌륭한 문화생활기지들에서 평범한 인민들이 마음껏 락을 누리고있는 나라는 오직 고국밖에 없다고 하면서 저저마다 고국에 와보고 싶던 소원을 풀었다고 자기들의 심정을 터놓았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미림승마구락부에서



더 많은 자료들을 보충 갱신하여

나는 2004년 1월부터 중국의 심양에서 심양천창시대과학기술유한공사를 설립하고 인터넷사업을 맡아하고있다.

나의 외할머니는 조선사람이다. 어렸을 때 나는 외할머니 집에서 자라면서 외할머니로부터 조선말과 조선노래를 배웠다. 지금도 나는 어느 정도의



조빈(왼쪽)

조선말은 할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인터넷사업을 하면서도 조선에 대해 깊이 관심하며 그 선전에 주목을 돌리기로 결심하였다.

그 결심을 실행하는 과정에 나는 조선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중국이 어려움을 겪을 때 헌신적으로, 성심성의로 도와준데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하여 1년전에 개설된것이 바로 《조선-금수강산》홈페이지이다. 사실 조선에 대해 선전하는데서 아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선전수단은 다름아닌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활발해진 인터넷홈페이지의 리용이다.

《조선-금수강산》홈페이지는 개설후 홈페이지리용자들의 열렬

한 환영을 받았다. 하루접촉자수는 무려 100만명정도이다. 앞으로 홈페이지에 더 많은 자료들을 부단히 보충갱신한다면 접촉자수는 더욱 늘어날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2005년부터 4차례 조선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나는 조선의 당과 국가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 그리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조선이 부단히 발전하고 인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할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조선에 대해 적대시하고있는 세력들의 반동적인 선전으로 눈이 먼 세계와 일부 중국인들 특히 젊은이들은 조선의 인민적인 정책과 인민생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있다.

나의 홈페이지의 개설은 바로 적대세력들의 반동적인 선전을 타파하고 조선의 좋은것과 긍정적인 면을 널리 선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중국인민은 중국 동북해방전쟁기간에만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령도밑에 조선의, 조선인민의 아낌없는 원조와 헌신적인 도움을 군사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받았다.

1945년 11월 29일 밤 일신의 위험도 무릅쓰시고 압록강을 건너 단동의 룡동군사령부를 찾으신 김일성주석님께서 중국공산당과 인민들이 반드시 승리할수 있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시고 당장 닥쳐온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전술을 사리

정연하게 밝혀주시었다.

당시 일제의 군사적강점으로부터 갓 해방된 조선의 형편은 매우 어려웠다. 거기에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전조선과 아시아, 나아가서는 전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반도를 둘로 갈라놓고 남조선을 강점하였을뿐만아니라 북조선에 대한 침략소동을 매일과 같이 벌리고있었다. 그렇지만 위대한 주석님께서 중국인민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하시며 국제주의적의리를 다하여 성의껏, 있는 것 도와주시었다. 그이께서는 10만여정의 무기와 수많은 군수물자만이 아니라 포부대와 공병부대도 조직하여 중국 동북전선에 파견하는 조치도 취해주시고 중국인민해방군의 부상자들을 위해 조선의 국경지역도 서슴없이 내주도록 하시여 반동적인 미제와 장개석피뢰군대를 물리치게 하시었다.

하기에 중국혁명이 승리한 후 중국인민의 위대한 수령 모택동주석께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오성홍기에는 조선렬사들의 선혈이 스며여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우에서 간단히 피력한바와 같이 것처럼 숭고한 마음을 지닌 조선에 대해, 조선인민에 대해 중국사람들도 잘 알아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우리 홈페이지 《조선-금수강산》은 아름답고 훌륭한 조선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할것이다.

중국 심양천창시대과학기술유한공사 조빈

고구려의 미술

반만년의 조선민족사에 특기할 자욱을 아로새긴 고구려는 미술분야에서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귀중한 유산들을 후세에 많이 남겨놓았다.

일찍부터 뛰어난 재능과 높은 문화수준을 지니고있던 고구려사람들은 회화와 조각, 공예 등 미술의 여러 분야에서 다방면적인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동방미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고구려미술의 높은 발전수준은 무엇보다먼저 회화의 뛰어난 발전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구려벽화무덤들은 100여기에 달하는데 벽화의 주제에 따라 크게 인물풍속도 벽화무덤, 인물풍속도 및 사신도벽화무덤, 장식무늬벽화무덤 등으로 구분된다.

인물풍속도는 고구려벽화의 초기단계에 속하는 류형으로서 말그대로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풍속을 그린것이다. 가장 대표적인것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있는 고국원왕릉(안악3호무덤) 벽화이다. 고국원왕릉은 그 규모가 크고 구조가 특이한데 잘 다듬은 돌벽에 직접 그린 벽화는 왕이 정사를 보는 장면과 궁정생활그림, 대행렬그림을 비롯하여 다른 무덤벽화들보다 주제와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다. 이밖에도 약수리벽화무덤의 사냥그림, 안악1호무덤의 춤그림, 수산리무덤의 교예그림, 씨름무덤의 씨름그림, 안악2호무덤의 비천그림, 세칸무덤의 기마전투그림 등이 있다.

동서남북 4개 방위를 맡은 환상적인 동물들인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형상한 사신도 역시 고구려무덤벽화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가장 우수한 그림으로 손꼽히고있는것은 강서큰무덤의 청룡과 현무, 강서중무덤의 주작과 백호이다. 이밖에도 무덤안을 장식해주는 장식무늬벽화도 있는데 장식무늬들은 주요벽화의 사이사이와 천정, 모서리 부위 등을 다양한 형식으로 장식하여 무덤안을 화려하고 신비롭게 하는데 리용되었다.

고구려미술의 높은 발전수준은 조각과 공예의 발전면모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조각유산들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은 영명사돌사

자상과 연가7년명 금동일광삼존상이다. 영명사돌계단에 세워진 높이 84.5cm의 돌사자는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매우 자연스러울뿐아니라 불쑥 내민 가슴, 억센 앞다리, 부릅뜬 눈 등은 맹수의 특징을 잘 살려 실감있게 형상되었다. 연가7년명 금동일광삼존상은 거푸집에 부어만든 금동조각상이지만 중심부처의 얼굴모양을 풍만하고 부드럽게 묘사하면서도 두어깨에서 량쪽으로 드리워진 옷깃과 옷주름은 강한 곡선을 이루게 형상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감을 주고있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불상들은 대성산 국사봉에서 발견된 남녀보살상과 여래좌상, 황해북도 곡산 지방에서 발견된 신묘년명 금동삼존상, 평양시 평천구역에서 발견된 금동미륵반가사유상, 충청북도일대에서 발견된 불상 등이다.

고구려공예술도 높은 발전수준에 이르고있었는데 평양시 려포구역 룡산리에 있는 진과리7호무덤에서 나온 해뿔음무늬금동장식만 놓고보더라도 고구려공예의 뛰어난 발전적면모를 그대로 엿볼수 있다. 반원형의 금속판을 한쪽으로 약간 내려 누른 형태로 된 이 장식품은 비교적 넓은 밑띠와 가는 호선띠로 테두리를 만들고 가운데는 두줄로 된 동그라미속에 날개를 한껏 편 세발까마귀를 뿔어새기었다. 동그라미우에는 봉황이 서있고 동그라미량옆에는 조형화된 룡대가리같은 무늬를 새겼으며 세발까마귀와 봉황, 룡의 두리에는 활활 타오르는듯 한 불길무늬를 형상하였다. 장식판뒤에는 1cm두께로 된 나무판대기가 붙어있고 테두리부분에는 딱정벌레의 날개를 깔아 장식물의 품격을 한층 높이었다.

금속공예뿐만아니라 도자기공예, 기와 및 벽돌공예, 옥돌공예, 염직공예, 가죽공예 등도 고구려에서는 당시로서는 높은 수준에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이 고구려는 미술분야에서 높은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삼국시기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문화를 선도하고 개화발전시키며 중세동방문화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황금석

울릉도와 독도를 지켜낸 안룡복

조선민족의 유구한 애국투쟁력사에는 나라의 령토인 울릉도와 독도를 지켜낸 안룡복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평범한 배군이었던 그는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의 령토를 끝까지 수호하려는 애국의 마음이 남달리 강하였다.

임진조국전쟁(1592년-1598년)시기 조선을 침략하였던 왜적들이 울릉도에 기여들어 닥치는데로 살륙과 약탈을 감행하여 섬사람들이 정든 고장을 떠나 차츰 인적이 끊어지게 된것을 좋은 기회로 삼고 17세기 왜적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제것으로 만들어보려는 야망밑에 울릉도를 《죽도(또는 의죽도)》로, 독도를 《송도》로 제멋대로 부르면서 조선봉건왕조에 탐사하겠다고 파렴치하게 놀아냈는가 하면 울릉도에 제멋대로 기여들어와서는 물고기잡이를 빼앗아 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1693년 여름 어느날 고기잡이 배에 몸을 실었던 안룡복과 울산의 어부들은 풍랑을 만나 울릉도에 닿을 내리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왜적들이 7척의 어선을 끌고 들어와있었다. 이에 격분한 안룡복은 그 즉시 왜적들에게 울릉도를 비법적으로 침범한데 대해 엄하게 추궁(그는 동래에서 일본인들과 교제하던 과정에 일본어를 잘하게 되었다.)하였다. 그러자 왜적들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자기들의 땅이라고 생떼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안룡복과 왜적들 사이에는 격렬한 론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안룡복은 시비를 명백히 가르기 위해 일본의 오끼시마(오랑도)에 가 그곳 도주와 담판하였다. 하지만 도주 역시 다름바 없었다. 오히려 그는 줄게들보다 더 교활하게 놀며 안룡복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령토라는것을 인정시키려고 획책하였다. 그러나 안룡복의 강경한 태도와 정당한 주장에 말문이 막힌 오끼시마도주는 그를 호끼주(시마네현) 태수에게 호송하였다. 호끼주태수는 많은 은덩이와 희귀한 물건을 내놓으며 그를 매수하려들었다. 하지만 안룡복은 이러한 비렬한 술책에 대하여 《나는 오직 일본이 다시는 울릉도와 독도를 강탈할 야망을 품지 않기를 바랄뿐이다.》고 하면서 단호히 거절하였다.

그의 완강한 투쟁에 의해 일본관백(막부의 쇼군)은 울릉도가 원래 일본령토가 아니라는 내용의 지시문을 내려보내게 하였으며 안룡복에게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령토가 아니라는것을 확인

하는 문건을 호끼주태수를 통해 주도록 하였다. 자기들의 패배에 앙심을 품은 왜적들은 그후 안룡복이 귀국도중 나가사키에 들렀을 때 그를 체포하여 구금하는 망동을 부리었다. 그리고는 안룡복이 가지고있던 일본관백의 문건을 빼앗고 그가 저들의 요구에 응하도록 갖은 위협공갈을 다하였다. 이렇게 50일간이나 안룡복에게 폭행을 가한 왜적들은 그를 다시 나가사키에서 조선의 동래왜관으로 호송하여 또다시 40여일간이나 억류시키며 어떻게 하나 그의 마음을 돌려세워보려고 별의 별짓을 다하였다. 그러나 뜻을 이룰수가 없게 된 왜적들은 하는수없이 안룡복을 석방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안룡복이 귀국한 후에도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왜적들의 침입은 그치지 않았다. 이에 격분한 안룡복은 1696년 봄 애국적인민들과 함께 또다시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기 위한 애국투쟁에 나섰다. 먼저 울릉도에 도착한 그는 이곳에 또다시 기여든 왜적들에게 《울릉도는 본래 우리 나라의 땅인데 어째서 침입했느냐?》고 추상같이 호령하며 왜적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러자 질겁한 왜적들은 그만 잘못했노라고, 다시는 침범하지 않겠다고 빌며 사정하였다. 이어 독도에 간 안룡복은 거기에 침입하였던 왜적들도 모조리 몰아내었다. 그리고는 오끼시마도주를 다시 만나 이미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토라는것을 일본관백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왜적들이 이곳을 침범하고있는 사실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였다. 그길로 호끼주태수를 찾아간 그는 태수에게 일본관백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령토가 아니라는것을 확인한 문건을 왜적들이 강탈한 죄와 그후 이곳을 비법적으로 차지하려고 한 사실을 낱낱이 폭로하였다. 이에 바빠맞은 태수는 그에게 조선을 침범하였던자들을 처벌하는것과 함께 앞으로 조선의 령토인 울릉도와 독도를 침범하는자들은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후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령토라는것을 인정한다는것을 조선봉건왕조에 알려왔으며 감히 여기에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였다.

이렇듯 조국의 한부분인 울릉도와 독도에는 령토주권을 위해 용감히 투쟁한 안룡복과 같은 우리 선조들의 애국의 넋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김형직사범대학 박사 부교수 김덕성

조선의 구석기시대

구석기시대는 사람들이 돌을 깨어 만든 타제석기를 주되는 로 동도구로 쓰던 시대를 말한다. 구석기시대는 인류가 발생한 이후 시작되어 지금으로부터 1만 5천년전까지 계속되었다.

조선에서는 인류발생 첫 시기부터 사람들이 살며 생산활동을 벌리었다는것을 보여주는 구석기시대의 유적,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구석기시대는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눈다.

구석기시대 전기는 인류가 발생한 때로부터 15만~10만년전까지의 매우 오랜 시기를 포괄하고 있는데 조선에서 이 시기의 유적으로 널리 알려진것은 검은모루유적(100만년이전, 황해북도 상원군 흑우리)과 동암동유적(88만~72만년전,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동), 전곡리유적(경기도 련천군 전곡면 전곡리)이다. 동암동유적에서는 찌개, 주먹도끼, 자르개, 망치 등 가장 원시적인 석기제작수법인 때려깨기와 내리쳐깨기수법으로 만든 로 동도구가 나왔다. 동암동유적을 남긴 사람들은 이러한 타제석기

를 가지고 무리를 지어다니면서 풀뿌리를 캐고 짐승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았다.

구석기시대 중기는 대체로 15만~10만년전부터 4만년전까지의 기간을 포괄한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굴포리 서포항유적의 굴포문화1기(라선시 선봉지구 굴포동), 승리산유적의 아래문화층(평안남도 덕천시), 석장리유적의 구석기시대 중기 문화층(충청남도 공주군 장기면 석장리)을 들수 있다. 이 시기 사람들은 구석기시대 전기와 달리 여러번 때려내고 잔손질을 하여 만든 석기를 가지고 짐승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살아갔다.

구석기시대 후기는 대략 4만년전부터 1만 5천년전까지의 시기를 포괄한다. 이 시기에 이르러 사람들의 몸구조와 발전과정이 완성되어 현대사람의 모습과 특징을 갖추게 되었다. 승리산유적의 웃문화층에서 나온 승리산사람이 그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있다. 승리산사람의 뼈화석으로는 아래턱뼈가 나왔는데 그것은 35살쯤 되어보이는 남자의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때 원시

무리보다 훨씬 발전되고 견고한 사회조직인 모계씨족공동체를 이루고살았다.

구석기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굴포문화 제2기, 부포리유적, 승리산유적의 웃문화층, 석장리유적의 후기문화층 등을 들수 있다. 유적들에서는 찌개, 굽개, 찌르개, 밀개, 칼날 및 격지들과 속돌 등이 나왔다. 이러한 석기들은 매우 발전된 석기제작수법인 대고떼기와 눌러떼기, 눌러뜯기방법으로 만든것들이었다. 이 시기 사람들은 발달된 몸구조와 개선된 로 동도구에 의거하여 그리고 공고화된 씨족집단의 힘으로 생산활동을 벌렸다. 그들은 채집, 짐승사냥과 함께 물고기잡이도 진행하였다. 사람들은 이때 동굴안에서도 살고 움집을 짓고 살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발견된 구석기시대의 유적들은 우리 선조들이 인류발생의 첫 시기부터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하면서 살아왔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야 화 다독의 명수

조선봉건왕조때에 김계휘라는 사람이 총명하고 책을 빨리 읽기로 소문이 났었다. 그는 책을 볼 때에는 단번에 열줄씩 내려 읽었는데 한번 눈에 거치는 글자와 글뜻을 모두 기억하였다고 한다.

그가 한번은 사신을 따라 이웃나라에 다녀온 일이 있었다. 그때 장마당을 구경하다가 그는 어느 책방들에서 보지 못했던 책들이 수없이 많은것을 보고 마음이 쏠리어 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보지 못한 책들을 다 사자고 해도 돈이 없었고 돈이 있다고 해도 그 많은 책을 가져갈수가 없어 속이 탔다. 궁리에 궁리를 거듭하던 끝에 그는 한가지 생각을 해냈다. 그리하여 책을 파는 사람에

게 그 책들을 다 사겠으니 숙소에 실어와달라고 청했다. 책주인은 곧 마차에 책을 한 가득 실어 그에게 가져다주었다. 김계휘는 그날 초저녁부터 초불아래서 날이 샅 때까지 한수레의 책을 다 읽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책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들을 인솔해온 사신이 책 살 돈을 내줄수 없다고 하여 사지 못하게 되었으니 미안한대로 도로 가져가야겠다고 하였다.

그후 조국에 돌아온 김계휘는 자기가 본 책들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한책도 빠진것이 없었거니와 한대목도 놓치지않았다고 한다.

* * *

개성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9)

- 만월대 -

세계문화유산의 하나인 만월대는 고려의 왕궁터입니다.

고려는 나라를 세운 다음 건설을 다그쳐 919년에 왕궁을 매우 화려하고 웅장하게 꾸려놓았습니다.

만월대의 왕궁은 강화도에 도읍을 일시 옮겼던 40여년간(13세기 중엽)을 제외하고는 고려왕조의 기본왕궁이었습니다. 면적은 125만㎡에 달합니다.

왕궁은 궁성과 그 남쪽에 있던 황성으로 나뉘어집니다. 궁성의 면적은 약 39만㎡입니다. 왕의 궁전들이 있던 궁성과 중앙관청들이 있던 황성을 합한 고려왕궁의 바깥성벽은 발어참성(태봉국시기의것)의 원래 성벽을 거의 그대로 리용하고 북쪽벽만 만월대의 북쪽언덕을 따라 새로 쌓았습니다. 황성의 정문은 동쪽에 나있었는데 그것을 광화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궁성의 남쪽에 있는 승평문이 정문이었고 서쪽과 동쪽, 북쪽에 서화문, 동화문, 현무문 등과 그밖에 작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동화문은 궁성과 잇닿아있는

동궁 즉 왕태자가 살던 곳으로도 통하였습니다. 광화문을 지나 승평문안에 들어서면 좌우에 동락정이라는 루정이 있었고 승평문과 신봉문사이에는 구정이라고 불리우던 넓은 마당이 있었는데 고려때 여기에서는 격구경기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신봉문은 2층으로 된 웅장하고 화려한 문이었습니다. 왕을 비롯한 관리들이 구정에서 진행되는 격구, 팔관회, 연등회 등을 신봉문문루우에서 보았으며 여기에서 군사도 사열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도 기단과 주춧돌이 남아있습니다. 신봉문은 정면 7간, 측면 4간이며 3개의 문길이 있는 큰문이었습니다. 신봉문 동쪽에는 동궁으로 드나드는 건춘문이, 서쪽에는 내전으로 통하는 태초문이 있었습니다.

신봉문터에서 북쪽에 있는 창합문터를 지나면 마당앞에 4개의 웅장한 돌계단을 갖춘 높은 축대가 있는데 이것이 회경전을 비롯한 만월대의 중심건축군이 자리잡았던 축대입니다. 경사가 급하여 높이 솟아보이는 33단의

돌계단을 올라 회경전 전문터를 지나면 회경전 본전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단과 주춧돌이 남아있습니다. 회경전 본전기단의 평면은 +형으로 되어있는데 계단은 정면에 4개, 후면에 3개, 측면 앞쪽에 하나를 내어 오르내리게 하였습니다. 정면 9간, 측면 4간의 이 웅장한 회경전 본전터는 가운데가 한단 높습니다. 회경전터뒤에 장화전, 원덕전, 장령전 등 큰 궁전의 터들이 연이어있습니다.

축대우에 높이 솟은 중심건축군의 서쪽에 왕이 일상적으로 정사도 보고 생활을 하던 궁전들이 자리잡고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건덕전터, 내전터를 비롯한 수많은 궁전터들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왕궁의 정자들에 이을 청자기와는 전라남도에서 만들어서 개성까지 부림소로 날라왔다고 합니다.

만월대의 고려왕궁유적에서 특히 주목되는것은 고려왕궁의 구성과 주요궁전터의 짜임새가 고구려의 수도성과 같은 점입니다. 고구려수도성인 평양성이 내성, 중성, 외성으로 되어있고 내성과 중성이 왕이 살던 궁성과 관청들이 있던 황성이며 안학궁의 궁전들은 +형의 평면을 가지였습니다. 고려왕궁이 궁성과 황성으로 되어있고 주요궁전들의 평면이 +형의 평면으로 되어있는것은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참으로 고려왕궁터-만월대유적은 고려시기 우리 인민의 창조적재능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유선화



민족의 향기

따뜻하고 구수한 송농맛을 느껴

구미에 맞게 식사를 마친 후 수저를 놓으면 여러분은 어떤 음료를 찾으시나요?

물론 사람마다 대답은 각이할것입니다.

약수, 차...

식사후에 적당히 마시는 음료는 그 어느것이든 인체에 일정하게 좋은 영향을 주지만 그 모든것 가운데서 송농을 제일먼저 꼽는분들은 아마 얼마 되지 않을것입니다.

하다면 늘 송농을 마시고있다는분들의 얼굴색들을 살펴보십시오.

하나와 같이 건강미가 넘치는 얼굴에 밝은 미소를 담고있을것입니다.

이렇게 송농에 대한 말쑥지를 떼고보니 언제인가 평양호텔에서 재중동포들과 식사를 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무렵 매 사람들앞에는 고뿌가 놓여졌는데 거기에 담긴 음료는 송농이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송농을 마시고나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저마다 말하였습니다.

《오래간만에 조국의 송농맛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드릴 송농을 먼저 정히 떠서 올리곤 하였는데 오늘따라 어머니생각이 절로 듭니다.》

《조국의 쌀밥이 맛이 있으니 송농맛도 좋습니다.》...

저는 한고뿌의 송농을 놓고 그렇게 기뻐하는 동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조선사람이 다르긴 다르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비록 하나의 전통음료라고 할지라도 해외에서 사는 조선동포들에게 안겨주는 충격은 작지 않았고 또 소중한것이었습니다.

민족의 우수한 풍습과 전통을 사랑하고 지켜나가는 그 마음이 곧 애국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 송농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떠나가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조선민족은 식사후에 송농을 즐겨마시었는데 바로 이 풍습에도 조선사람들의 알뜰한 살림살이기풍이 깃들어있습니다.

송농은 가마에서 밥을 지어 그릇에 담아낸 후 솔바닥에 늘어붙은 밥(가마치 또는 누룽지라고 부릅니다.)에 물을 붓고 끓여 우려낸 물로서 조선에



서만 볼수 있는 독특한 음료입니다.

우리 민족이 송농과 같은 독특한 음료를 창안하게 된것은 일찍부터 벼를 비롯한 오곡작물을 심어가꾸면서 농업생산활동을 진행하여 밥을 기본주식으로 하였기때문이며 술을 부뚜막에 고정하고 아궁에서 불을 지펴 밥짓기를 하던 생활방식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우와 같이 밥을 짓는 경우에는 누룽지가 생기기 마련이었는데 그 누룽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방법은 거기에 적당한 량의 물을 붓고 다시 끓여 송농을 만드는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송농은 누룽지의 구수한 맛과 독특한 향기를 낼뿐만아니라 비타민 B₁, B₂, PP 등 여러가지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인체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 조국인민들은 오늘에 와서도 송농을 만들어 마시는 풍습을 그대로 이어가고있습니다.

송농에 대한 첫 역사기록자료는 고려시기에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음료인 송농은 그 맛과 향기가 구수하면서도 독특하여 우리 인민의 구미와 기호에 꼭 맞았으며 그것이 널리 일반화되면서 조선봉건왕

조국의 천연기념물 (7)

함경남도에는 많은 천연기념물이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금야은행나무, 동홍산은행나무, 조상사과나무, 죽도신의대군락, 장진정장어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금야은행나무는 함경남도 금야군 동홍리의 절골 안불사뒤에 있는 나무입니다.

나무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크고 오래 자란 은행나무로서 학술연구상 의의가 있으며 이 일대의 풍치를 돋구어주는 귀중한

자연재부로 지정되어 특별히 보존관리되고있습니다. 나무의 나이는 2120여년(2003년 당시)이고 높이는 41m이며 밑동둘레는 16m, 가슴높이둘레는 15m, 밑동직경은 4.8m, 가슴높이직경은 4.6m입니다. 나무갓은 직경이 동서방향으로 40m, 남북방향으로 50m로서 우산모양의 생김새를 이루고있습니다.

나무그늘의 면적은 1800㎡이며 줄기는 1.5m의 높이에서 세 갈래로 갈라져 여기서 많은 가지

들을 치고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밑에서는 새로 두개의 어린 줄기가 자라는데 기본줄기에서는 높이 3m에서 젓꼭지모양의 두개의 돌기가 자라고있습니다. 이 돌기는 1000년에 하나씩 자란다고 합니다.

나무에는 해마다 많은 열매가 달리며 나무를 멀리서 보면 작은 산같이 보입니다. 나무밑에서면 하늘이 보이지 않아 마치 깊은 숲속에 들어선것 같이 보일 정도로 나무가 큼니다.

동홍산은행나무는 함경남도 함흥시에 있습니다. 400년이상 자란것으로서 함흥지구에서 제일 크며 그 생김새가 특이하고 아름다와 학술연구에서나 풍치를 돋구는데서 의의가 크므로 잘 보호관리되고있습니다.

나무의 높이는 18.5m, 밑동둘레는 4.42m, 가슴높이둘레는 3.25m이며 나무갓의 직경은 동서로 31.5m, 남북으로 29.5m입니다. 나무는 키에 비해 땅결면과 수평되게 사방으로 가지를 많이 쳐서 나무갓이 넓은것이 특징입니다. 나무에는 해마다 수백kg의 열매가 달립니다.

조상사과나무는 이름난 사과

하여오는 과정에 그와 관련한 식생활관습들이 생겨나고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가정들에서는 웃어른들의 식사때에 반드시 송늬를 대접하는것을 하나의 식사례절로 여기고있으며 송늬와 관련한 속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식사후 수저를 놓고 따끈하고 구수한 송늬를 드실 때마다 전통음료의 독특한 맛과 향기를 감미하며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게 되리라는것을 우리는 믿어마지 않습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옥



동홍산은행나무

고장인 함경남도 북청군 룡전리에 있습니다.

주체48(1959)년 10월 룡전리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 나무가 룡전리사과나무의 조상일뿐 아니라 우리 나라 사과나무의 조상으로 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사과나무관리를 잘하여 100년이상 사과를 따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이 나무는 100살이 훨씬 넘은 《장수나무》로서 오늘도 푸르싱싱 자라고있습니다. 나무의 높이는 4.62m, 밑동둘레는 0.82m입니다. 꽃은 5월 10일경에 필니다.

죽도신의대군락은 함경남도 홍원군 호남리에서 8km 떨어진 동쪽해상의 죽도에 퍼져있습니다. 섬은 예로부터 신의대가 무성하여 죽도(대섬)라고 불리우고있습니다. 죽도신의대군락은 섬의 동남쪽비탈면 맨 밑바닥으로부터 제일 높은 산꼭대기에서 30m 내려온 곳까지 퍼져있습니다.

이곳에는 소나무가 많이 퍼져있습니다. 그리고 신의대가 퍼져있는 반대쪽비탈면에는 진달래나무, 싸리나무, 생당쭈, 새초류 등이 자라고있습니다.

죽도신의대군락은 종의 분포와 무리의 특성을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천연기념물입니다.



조상사과나무

큰 물고기이며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므로 국가적인 보호대책이 세워지고 자원증식을 위한 과학기술적연구가 진행되고있습니다.

조선자연보호련맹 중앙위원회 연구사 김지향



장진정장어



죽도신의대군락

금야은행나무 주체101(2012)년 촬영



조시기에는 그 가공방법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옛 기록들에 나오는 송늬만드는 방법은 오늘날과 거의 같습니다. 송늬는 전국적으로 다 만들어 마시었는데 지방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지방에서는 가마에서 밥을 쪄 다음 미리 준비 하였던 쌀씻은 깨끗한 물을 부어 끓여마시였으며 또 쌀을 고를 때 나오는 싸래기를 깨끗하게 씻어 말려두었다가 가마에 한줌씩 넣어 닭아서는 물을 두어 끓이기도 하였습니다.

송늬는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음식료로 리용되고 또 어느 가정에서나 손쉽게 만들어 리용

련대련합과 단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은 온 민족이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련대련합하고 단결하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거족적통일대진군을 다그쳐나갈 때 빛나게 실현될 수 있다.

련대련합하고 단결하는것은 조국통일운동의 본성적요구이며 통일애국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전제이다.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애국의 기치밑에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위업이며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힘은 우리 민족의 주체적력량이다. 민족대 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다.

련대련합을 실현하는것은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민족 내부에 비록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조국통일의 큰 뜻을 앞에 놓고 련대련합을 강화해나가면 서로의 리해와 신뢰를 두터이하고 민족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능히 힘을 하나로 합칠수 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모든 차이를 뒤로 미루고 련대련합하여 공동행동을 벌리는 과정에 이루어지고 공고화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대 단결과 조국통일의 숭고한 리념을 안고 련대련합하여 민족의 단합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단결의 힘으로 조국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적극 추동해나가야 한다.

련대련합하고 단결하는것은 현시기 북남관계의 실태로 하

여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오늘 북남관계는 당국은 물론 민간단체들사이의 접촉도 래왕도 없는 완전격폐상태에 있다. 리명박에 이어 무지스러운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그 무슨 《북핵위협》을 떠들며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남조선보수패당이 악랄하게 감행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과 전쟁책동, 체제대결책동에 의하여 북남관계는 극도로 악화되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지난 한해동안만 놓고보아도 박근혜패당은 극단적인 동족대결야망으로부터 북과 남의 각계단체들과 인사들의 련대련합과 접촉, 래왕을 각방으로 방해하면서 조국통일운동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다.

오늘의 파국적인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의 당국간, 단체들사이의 접촉과 래왕의 물고를 터뜨리고 련대련합을 실현하여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실사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민족적망심이 남아있다면 주저없이 손을 잡고 마음을 합쳐 통일애국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것이 민족대 단결리념의 참뜻이다.

조국통일운동은 해내외의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의 활발한 접촉과 래왕을 통해 진행되고 발전하게 된다. 온 겨레가 광범히 참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쌍무적, 다무적인 접촉과 래왕을 적극 장려하는것이 중요하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

당, 단체들, 각계각층 동포들은

조국통일운동에서 서로 지지하고 보조를 같이하면서 공동행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는 이미 지난세기 조선에 대한 일제의 군사적강점을 끝장내기 위한 항일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단결의 고귀한 경륜과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전체 조선민족이 계급, 성별, 지위, 당파, 나이, 종교의 차이를 불문하고 일치 단결하여 원수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과 싸워 조국을 해방하고 조선인민정부를 수립하자는 조국광복회의 호소에 호응하여 국내외의 모든 반일력량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광복회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전민항쟁을 벌림으로써 온 민족이 학수고대하던 조국해방[주체34(1945)년 8월 15일]위업을 성취하였다.

백두밀림에서 마련된 민족대 단결의 사상은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조국땅우에 백두에서 한나까지 서로 오가며 혈육의 정으로 껴안고 통일의 뜻으로 손을 맞잡던 6. 15통일시대를 펼쳐놓을수 있었다.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민족적범위에서 련대련합하고 래왕과 접촉을 하면서 조국통일운동을 활발히 전개해나갈 때 자주통일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길수 있다는것이 6. 15통일시대가 웅변으로 실증해준 진리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운동에 힘차게 떨쳐나섬으로써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할것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안성호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초래할것은

얼마전 미국기자 마이크 워트니는 국제영문인터네트신문 《제4언론》에 낸 글에서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당근과 채찍》이 아니라 《몽둥이와 더 큰 몽둥이》이라고 하였다.

그렇다. 그가 표현한대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몽둥이와 더 큰 몽둥이이다.

《공산주의의 위협》을 운운하며 청소한 공화국을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은 트루먼행정부로부터 공화국을 《악의 축》, 《불량배국가》로 제멋대로 규제한 부쉬행정부를 거쳐 《전략적인내》를 표방한 오바마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끈질기게 이어져온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기본목표는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정권전복》이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힘의 사용과 고강도제재, 압박으로 일관되어 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북침전쟁계획이며 그것은 미국이 5단계로 작성한 《5027》북침전면전쟁계획, 《외과수술식타격》을 기본으로 한 《5029》작전계획, 《북급변사태》발생을 노린 《5030》전쟁계획 등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이 모든 북침전쟁계획에 따라 수십년간 남조선에서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과 《을지 프리덤 가디언》련합훈련을 비롯하여 침략전쟁연습들이 강도높게 감행되어왔다.

올해에도 미국과 남조선은 물론 추종국가들까지 참가하여 벌린 《키 리졸브》, 《독수리 17》합동군사연습 역시 새로 작성한 작전계획 《5015》(공화국의 《수뇌부제거》와 《제도전복》을 노린 북침선제공격계획)에 따라 감행되었다. 침략전쟁연습에는 공화국에 대한 《수뇌부제거》와 《제도전복》을 위한 특수작전병력과 수단들, 중동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악명을 떨친 공수련대, 특수전단, 해병원정단을 비롯한 살인악당들 그리고 미국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대측의 《수뇌부제거작전》 등을 전문으로 감행하여 《둔갑술을 쓰는 무사부대》로 알려진 《데브그루》와 《백악관별동대》로 불리우는 합동특수전사령부소속 《델타 포스》악마들까지 동원되었다. 상대측의 지도부압살과 중요대상물타격을 위해 개발하였다는 최신형무인공격기 《그레이 이글》과 수직리착륙이 가능한 특수작전기편대들, 특공대무리들의

출격기지로 리용된 핵항공모함 《칼빈슨》호타격단도 기동전개되었다.

오늘날 트럼프행정부가 새로 책정하였다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 역시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방면에서 공화국을 최대 압박하고 끝까지 질식시켜 무조건 붕괴시켜보려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이다.

력대 미행정부들은 대조선정책작성에서 군사적 위협과 함께 제재를 통한 고립압살에 중점을 두었다. 지난 세기는 물론 오늘날에도 그것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있으며 지난 5월에는 지금까지 실행해온 그 무슨 《제재의 빈구멍》을 메꾼다고 하면서 제재범위를 최대한 넓히고 공화국과 경제거래를 가지거나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다른 나라 기업들과 단체, 개인들까지 제재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조선제재법안까지 통과시켰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서 요점을 이루는 하나가 공포전략이다.

미국은 1950년 8월에 벌써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조선 북부에 방사능복도지대를 형성할것》이라는 핵공갈로 조선반도에서 《원자탄 피난민》행렬이 흐르고 수많은 가족, 친척들이 북과 남, 해외로 갈라져 생리별의 고통을 겪게 하였으며 1960년대에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1970년대에는 판문점사건, 1990년대초의 《핵문제》등의 구실로 방대한 핵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주변에 끌어다놓고 핵전쟁도발을 기정사실화한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오늘날 미국의 공포전략은 사상최악을 기록하고있다. 미국은 공화국에 대한 《접근범이자 곧 선제타격》이라고 떠벌이면서 저들의 전략이 강경적대시전략임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가증되는 대조선적대시책동은 공화국에 첫 수소탄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의 대성공,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시험발사,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의 대성공 등 상상할수 없는 속도의 핵무력고도화실현만을 가져왔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초래할것은 조선의 핵무력강화와 천만군민의 보복의지를 천백배로 더욱 다져놓을것밖에 없다.

권정남

날조와 거짓의 명수 일본

세계력사에는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한 죄행에 대한 자료가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일본처럼 조약아닌 《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을 불법강점한것과 같은 파렴치한 날강도 행위는 일찌기 없다.

1910년 8월 22일에 날조된 《한일합병조약》은 일제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구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조선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림으로써 일본의 철저한 노예로 전락시킬것을 목적으로 한 전대미문의 협잡문서로서 일제의 침략적본성과 강도성, 파렴치성을 보여주는 력사의 증거물이다.

합병이란 말은 둘이상의 나라나 사회정치조직이 공통된 의사에 따라 하나로 합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당시 일제가 날조한 《합병》은 조선민족의 의사에 따른것이 아니였으며 일본이 조선에 대한 강도적인 병탄책동일따름이었다.

일제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범죄적용모와 모든 강권을 다 발동하였다. 사실 일제는 이 거짓문서가 날조되기 전에 《을사5조약》(1905년)과 《정미7조약》(1907년) 날조를 통해 조선봉건정부의 외교권과 군사통수권, 사법권, 경찰권을 빼앗아냈다. 따라서 당시 조선봉건정부가 일본과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조약을 체결할수 없었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바로 여기에 《한일합병조약》이 불법, 비법의 거짓문서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다른 근거는 《한일합병조약》이 일제가 군사적위협과 강제외압의 방법으로 날조한것이라는것이다. 일제는 당시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진압하며 정부관리들을 군사적위협으로 굴복시켜 저들의 목적을 순조롭게 단행할 목적밑에 일본침략군과 헌병대를 대대적으로 증강배치하고 인천에 군함을 끌어들이는 살벌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한편 황궁과 봉건정부의 중요부서들을 2중3중으로 포위하고 순종황제에게 매국역적 리완용을 저들이 미리 작성하여놓은 《조약》의 전권대표로 임명할

데 대한 《전권위임장》비준을 요구해나섰다. 그리고는 순종황제로부터 《전권위임장》에 대한 비준을 강제로 받아내자 《한일합병조약》을 순식간에 날조하였다.

이 《조약》은 조선봉건정부의 최고통수자인 황제의 비준조차 받지 못한것이다. 원래 《한일합병조약》 제8조에는 본 《조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1910년 8월 29일에야 공포된 《병합》을 알리는 순종황제의 《칙유문》에는 행정적결재에만 사용하는 어새만 찍혀있을뿐 황제의 서명이 없었다. 이와 반면에 같은 날에 공포된 《병합》을 알리는 일본왕의 《조칙문》에는 어새와 함께 서명이 찍혀져있었다. 이처럼 서로 상반되는 《한일합병》이야말로 《순종황제의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일본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이며 이 《조약》이야말로 국제법상 무효라는것을 여실히 입증하여주고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패망(1945년 8월 15일)된지 72년이 되는 오늘까지 이 《조약》이 《조선인의 선택이었다.》느니, 《완전한 절차를 밟은것이였다.》느니 하며 조약 아닌 《조약》에 합법성을 부여해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일본은 조선민족에게 끼친 수많은 죄악을 이런 식으로 날조하고 거짓으로 미화분식하고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만 놓고봐도 《부모들이 딸들을 팔아먹었다.》고 헛나발을 불어대며 흑백을 전도하는 일본이다. 뿐만아니라 이제는 어벌이 커져 미국을 등에 업고 재침의 칼을 버리며 군국화애로 미친듯이 내달리고있다.

최근시기에만도 일본에서는 막대한 군사비가 지출되는 속에 극우익정객들이 끊임없이 야스구니진자를 참배하고 해외파병과 헌법수정책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으며 《전쟁전교육》을 되살리기까지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지난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본군이 부르던 《기미가요》를 공공연히 제창하고 《히노마루》를 빼것이 날리는가 하면 일본의 피비린내나는 침략사를 《정의》로 정당화하고 특급전범자들을 《영웅》으로 찬미하고있다.

날조와 거짓으로 과거죄악을 한사코 부정하며 또다시 죄악을 덧쌓으려는 일본의 부질없는 망동이 저들자신의 파멸로 끝나게 될것이라는것을 일본은 순간도 잊어서는 안된다.

본사기자

유모아

불공평한 점수

학생: 《선생님, 이번 시험에서 나한테 0점을 주었는데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교원: 《글쎄 나도 그렇게 생각되오. 그러나 방법이 없구만. 0점보다 더 낮은 점수를 찾을수 없으니 말이요.》

* * *



곰등어의 뽀뽀

릉라곰등어판에는 여러가지 재주를 하는 곰등어들이 살고있습니다.

곰등어들은 하나와 같이 춤도 잘 추고 공다루기, 룬돌리기, 집체조약도 잘하며 섹세기 또한 잘해서 관중들의 절찬을 받고있습니다.

손님은 뽀뽀, 곰등어는 바다탐의 명예를 걸고 룬돌리기경기를 할 때에는 영낙없이 곰등어가 이기곤 하는데 손님에게는 성의를 봐서 색깔고운 고무풍선이 상으로 안겨집니다.

손님들이 제일 좋아하는것은 뽀뽀뽀해도 곰등어의 뽀뽀입니다.

곰등어는 자기와 성별이 다른 손님과만 뽀뽀를 합니다. 악수도 제법 청합니다.

조선서해의 바다물이 흘러든 물맑은 릉라곰등어판의 수조에서 손님들과 만나게 된 기쁨을 뽀뽀에 실어보는 곰등어가 좋아라 꼬리를 저울 때 누구나 그 즐거움속에 자리를 뜰줄 모른답니다.

아름다운 평양의 릉라도에 세워진 릉라곰등어판에서 곰등어의 뽀뽀를 받은 분들은 가슴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게 될것입니다.





묘향산 만폭동의 비선폭포 조선중앙통신

울창한 수림속에 깎아지른듯 한 바위벼랑을 타고 떨어지는 두갈래의 폭포수.

보얀 물안개를 일으키며 떨어지는 아름답고 장쾌한 그 모습 무려구슬인가 실실이 드리운 수천수만의 은실오리인가,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조차 신비롭게만 들린다.